

기본연구 2010-4

일본인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방안

신 동 일

시장다변화와 제주관광의 경쟁력 향상

최근 4-5년 사이에 대내외적인 환경요인과 더불어 제주관광은 기대이상의 양적인 성장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성장은 내국인관광객의 급속한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외국인관광객의 성장세는 아직도 조금 부족한 점도 사실이다. 향후 동북아 관광시장의 최대 소비자는 중국시장임이 분명해 보인다. 제주 역시 이에 대한 전략과 정책 마련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더불어 전통적으로 제주의 시장이 되어주었던 일본시장을 포기하는 것은 아직은 너무 이르다는 생각도 든다. 이런 점에서 수학여행단의 유치는 단기적으로 큰 효과가 의문시될 수도 있지만, 미래의 소비자를 미리 확보한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필요가 크다.

중앙정부 역시 최근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수립된 제3차 관광진흥5개년계획을 보면 일본인 수학여행단 유치가 전략적 사업의 하나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한국관광공사는 일본 수학여행 관계 교직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팸투어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장차 블루오션으로서의 가능성을 내다보는 것이다. 일본인 수학여행단 유치를 확대한다는 것은 관광시장을 다양화한다는 의미 외에도 제주관광 이미지를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업계, 정책당국, 그 외 관련자 모두가 제주관광의 이미지와 내도관광객 구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제시된 개선 방안들이 제주관광의 성숙을 위한 기초자료이자 대안으로서 활용되기를 바란다.

2010년 8월

제 주 발 전 연 구 원
원 장 양 영 오

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 여행은 학생에게 현장체험과 문화교류 및 사회적 상호관계를 형성시키는 기회임. 특히 수학여행을 통한 초기 여행경험은 성인기의 여행행동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일본인 수학여행단 유치를 성장가능성이 높은 틈새시장으로 보고, 지난 8월 수학여행 담당 교직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노력을 기울이는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는 관광시장으로 성장한 일본인 수학여행단들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제주가 이들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과 정책적 대안의 필요성에 의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음.

2. 일본의 해외수학여행 실태

- (재)일본수학여행협회가 2009년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해외수학여행 실태보고서에 의하면 14만여명으로 2007년의 17만 6천명, 2008년의 16만 6천명과 비교하여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2006년 이후 해외수학여행 추이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건수	1,191건	1,396건	1,325건	1,054건
인원	156,579명	175,455명	166,345명	141,775명

자료 : (재)일본수학여행협회, '해외수학여행실태조사결과', 2009. 6

- 학교별로는 2009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9건(476명), 중학교가 121건(10,874명), 고등학교가 924건(130,425명)으로 대부분 고등학교 위주로 해외수학여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학교별 해외수학여행 실태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년	8건 (251명)	141건 (11,256명)	1,176건 (154,838명)
2009년	9건 (476명)	121건 (10,874명)	924건 (130,425명)

자료 : (재)일본수학여행협회, '해외수학여행실태조사결과', 2009. 6

- 일본 중학교에서 해외수학여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가별로는 호주가 24%로 가장 선호하는 대상지로 나타났고, 한국은 16%로 제2위 선호대상지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3> 중학교 해외수학여행 대상지

호주	한국	뉴질랜드	영국	미국	싱가포르	하와이
24%	16%	11%	9%	7%	6%	5%

자료 : (재)일본수학여행협회, '해외수학여행실태조사결과', 2009. 6

- 일본 고등학교에서 해외수학여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가별로는 한국이 17%로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호주가 12%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4> 고등학교 해외수학여행 대상지

한국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하와이	대만
17%	12%	10%	10%	8%	7%	6%

- 학교별로 월별 실시건수를 비교해 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10월과 11월에 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 학교별 월별 실시비율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10월	33%	35%
11월	30%	33%

자료 : (재)일본수학여행협회, '해외수학여행실태조사결과', 2009. 6

- 숙박일수에 대한 조사결과는 고등학교의 경우 3~6박의 건수가 전체의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4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6> 해외수학여행 숙박일수

구분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말레 이시아	기타 아시아	오세 아니아
2박	3	0	1	0	0	0
3박	62	16	17	16	0	6
4박	90	36	41	43	2	23
5박	30	22	45	38	6	38
6박	4	7	5	5	2	51
7박	3	2	1	0	2	27
8박	3	0	0	0	0	14
9박	1	0	0	0	0	5
10박	0	0	0	1	0	4
11박	1	0	2	0	3	32
이상	1	0	2	0	3	32
합계	197	83	112	103	15	200
비율	18.4	7.7	10.4	9.6	1.4	18.8

자료 : (재)일본수학여행협회, '해외수학여행실태조사결과', 2009. 6

주: 오세아니아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합산한 결과임.

- 해외수학여행 경비는 평균 5.8밖에 189,171엔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립중학교는 261,722엔, 사립고등학교는 213,714엔으로 조금 더 많은 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방문지별 지출경비는 한국은 평균 104,744엔, 중국은 131,367엔, 싱가포르 1442,536엔, 오세아니아는 258,625엔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7> 학교별 해외수학여행경비

(단위 : 엔, 박)

구분	상한	하한	평균경비	평균박수
공립중학	280,000	45,000	127,384	4.7
사립중학	600,000	70,000	261,722	8.1
공립고교	350,000	50,000	120,903	4.2
사립고교	578,886	82,000	213,714	6.2

자료 : (재)일본수학여행협회, '해외수학여행실태조사결과', 2009. 6

<표 8> 방문국별 해외수학여행경비

(단위 : 엔, 박)

구분	상한	하한	평균	평균박수
한국	170,000	45,000	104,744	4.0
중국	240,000	78,000	131,367	4.1
싱가포르	250,000	94,000	142,536	4.4
말레이시아	360,000	83,500	140,300	4.4
기타 아시아	280,000	108,000	165,375	6.2
오세아니아	600,000	100,800	258,625	7.7

자료 : (재)일본수학여행협회, '해외수학여행실태조사결과', 2009. 6

주: 오세아니아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합산한 결과임.

3. 수용태세 개선 방안

1) 제도 부문

(1) 일본인수학여행유치협의체 구성

- 일본인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장조사 및 전략 수립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함에도 현재 제주에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 없는 실정임.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및 관련 업계 대표들로 협의체를 구성함을 원칙으로 함.
- 협의체의 역할
 - 일본인 수학여행단 시장조사
 - 팸투어의 실시 및 홍보/마케팅
 - 수학여행 관련 업체의 관리 및 지도
 - 수학여행 관련 상품의 개발 등

(2) 수학여행 관련 업체인증제 도입

- 대부분 낮은 단가로 인해 청결도, 음식의 질과 맛, 프로그램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품질강화가 목적임.
- 일본인 수학여행 시설 및 업체로서 적절한 품질 기준 및 매뉴얼의 마련
- 객실의 청결 및 안전도, 음식의 위생 및 맛, 프로그램의 충실도 등에 대한 평가 후 우수업체로 인증하는 방안을 강구함.
- 우수인증업체의 경우 제주도와 관광공사, 관광협회 홈페이지는 물론 수학여행 정보 인프라를 통해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세제 감면 등의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동시에 강구함.

(3) 안전제도 마련 및 교육 강화

- 수학여행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행상품이기에 기획 및 운영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안전성의 확보가 될 수 있음.
- 또한 수학여행은 특성상 대규모의 인원이 동시에 이동하는 형태이다 보니 사고가 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성 확보 문제는 수학여행 유치를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수학여행 안전에 관한 학생들 대상 예방교육의 필수화
- 지역 내 경찰서와 소방서, 병원 등과의 협력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 예방 및 최소화
- 수학여행단에 대한 경찰의 에스코트 제도의 도입
 - 전남지역의 경우 지역 내 수학여행단을 에스코트하는 관광도우미로 경찰들을 활용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어내기도 하였음.
- 수학여행단 탑승 버스의 최고속도 제한
 - 일본의 경우 수학여행단을 태운 차량은 시속 60km로 제한하고 있음.
- 수학여행단 탑승 차량에 대한 추월금지 제도 도입
 - 일부 나라에서는 어린이 및 학생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월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주는 이를 수학여행단까지 확대하는 방안 마련

2) 관광인프라 부문

(1) e-tourism 정보인프라 구축

- 제주의 낮은 인지도와 수학여행 관련 정보부재는 일본인 수학여행단 유치의 최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수학여행설명회 및 팸투어와 같은 제한적인 활동으로는 지속적인 정보제공이 미약할 수 있으므로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인프라 구축이 필요시 됨.
- 제주관광공사 웹사이트에 수학여행 정보 메뉴를 신설하여 수학여행을 위한 코스 정보, 관광지 정보, 시설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함.
- 정보제공은 물론 온라인 수학여행마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행사들

의 상품정보, 업체들의 할인정보, 거래지원 정보 등을 전달하는 기능도 수행하게 함.

(2) 수학여행지도사 양성

- 교사들은 수학여행 기획경험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미흡하여 보다 효과적인 수학여행 프로그램 마련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
- 조사에 의하면 많은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수학여행을 기획하고 도와주는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수학여행지도사는 크게 내국인 전담인력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전담인력으로 구분하여 양성하고, 해당 학교가 제주를 찾는 경우 전담하여 수학여행을 지도함으로써 수학여행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기능을 수행함.

(3) 수학여행 전용 숙박시설의 확충

- 기존의 관광호텔은 수학여행단에게는 비용부담이 크고, 여관은 시설의 청결도 및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함.
- 2급과 3급 호텔을 중심으로 일본인 수학여행 전담 숙박시설로 유도함으로써 수학여행단의 경비와 만족도를 동시에 제고하는 방법으로 활용함.
- 또한 수학여행 전담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비용의 지원과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업체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함.

3) 상품개발 부문

(1) 수학여행 코스 개발

- 제주는 일본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자연, 역사, 문화적 요소가 다양함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 따라서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전적지, 지질공원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수학여행 상품으로 개발하고 코스화하는 방안이 시급함.

- 세계자연유산 탐방 수학여행
- 제주지질공원 탐방 수학여행
- 일본군 전적지 역사탐방 수학여행
- 제주올레 트래킹 수학여행 등
- 제주 홈스테이 교육여행 상품
 - 일본의 경우 수학여행과 더불어 가장 인기있는 교육여행은 홈스테이 체험을 통한 문화와 역사 및 언어배우기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일본은 통상적인 수학여행 이외에 홈스테이, 어학연수, 유학 등을 통칭하여 교육여행이라 부름.

(2) 수학여행 상품공모전 개최

- 제주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차별화할 만한 특별한 수학여행 상품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상품공모전을 개최함.
- 단체형, 한 학년형, 한 반형 등 다양한 형태의 수학여행상품을 공모하고, 우수상품에 대해서는 수학여행 마트나, 매뉴얼, 정보인프라를 통해 홍보의 기회를 부여함.
- 상품공모전과 더불어 우수 수학여행 사례집 등을 발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3) 제주수학여행 실행매뉴얼 보급

- 제주의 인지도가 낮고 정보가 부족한 관계로 수학여행 기획단계에서부터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상품정보의 부재, 진행방법 등에 대한 노하우 부족 등이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수학여행 기획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 제공 및 이용 인프라의 안내, 수학여행시 안전사고를 대비한 대처방안 등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
- 실행매뉴얼 내에는 ‘제주수학여행의 올바른 기능 및 효과’, ‘우수 제주수학여행 사례’, ‘제주수학여행 진행방법’, ‘제주수학여행시 안전사고 대응방법’, ‘제주수학여행 시설 이용방법’ 등의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게 함.

4) 홍보·마케팅 부문

(1) 인지도 강화 및 홍보의 조기실행

- 현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결과 제주가 일본인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제주의 낮은 인지도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제주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홍보 전략으로는 현지 관광설명회, 관광박람회/상품전 등의 참가, 기타 국제회의참석 등이 주요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현지 유명 연예인과 인사를 활용한 이미지 광고가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이것은 특히 유명인들의 미디어홍보에 많은 관심과 신뢰감을 갖는 일본인들의 특성상 다소 비용은 많이 들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2) 제주와 일본 학교와의 자매결연 강화

- 일본의 경우 교류협력 내지는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에서의 방문을 예의처럼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
- 제주지역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일본의 학교들간의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상호 교환방문 형태의 접근은 제주의 인지도를 높이고 수학여행지로서의 상품가치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될 수 있음.

(3) 구전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 구전 커뮤니케이션 정보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된다는 특성 때문에 상품소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조사하는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서도 친구/친지/동료 등에 의한 구전 커뮤니케이션이 관광목적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 조사되었음.
- 제주수학여행을 경험한 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집, 사례집 등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홍보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함.

(4) 일본 현지여행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마케팅 구축

- 일본인들은 자국의 여행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신뢰도가 높아 일본 현지 여행사와의 협력마케팅은 가장 빠른 마케팅수단임.
- 일본 5대 여행사인 JTB, KNT, 니혼료코, 잘팍, 한큐교통 등 대형여행사에 제주홍보 협조를 위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공동광고, 카탈로그 제작 지원, 공동 판촉활동, 전시회 공동 참가, 팸투어 지원, 공동설명회 개최 등의 협력마케팅을 모색해야함.

(5) 한국 내 관련 기관과의 공동마케팅 강화

- 정부 차원에서도 일본인 수학여행단 유치를 의미있는 틈새시장으로 보고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 한국관광공사의 각 년도 홍보일정을 조기에 파악하여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현지 관광설명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모색하여 홍보의 효율성과 비용절감 효과를 도모함.

<표 9> 일본인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 방안

구분	정책 제언
제도 부문	일본인수학여행단유치협의체 구성 수학여행 관련 업체인증제 도입 안전 관련 제도 정비 및 교육 강화
인프라 부문	e-tourism 정보인프라 구축 수학여행지도사 양성 수학여행 전담 숙박시설 확충
상품개발 부문	제주수학여행 코스 개발 수학여행 상품공모전 개최 제주수학여행 실행매뉴얼 보급
홍보·마케팅 부문	인지도 강화 및 홍보의 조기실행 제주와 일본 학교와의 자매결연 강화 구전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일본 현지 여행사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마케팅 구축 한국 내 관련 기관과의 공동마케팅 활성화

목 차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방법	2
4. 연구 구성	2
II. 현황 및 실태 분석	3
1. 제주관광의 현황	3
2. 일본인 해외관광 동향 및 전망	15
3. 정부의 일본인 관광객 유치 정책	17
4. 경쟁지역의 일본인관광객 유치 장단점	26
III. 시장 조사	28
1. 조사 개요	28
2. 조사 대상	28
3. 면접조사 결과	30
4. 실태조사 결과	36
5. 관광상품 분석	40
IV. 수용태세 개선방안	44
1. 제도 부문	44
2. 관광인프라 부문	46
3. 상품개발 부문	48
4. 홍보·마케팅 부문	50
<참고문헌>	54
<부록>	55

표 · 그림 목차

<표 2- 1> 관광사업체 및 관련 사업체 현황	4
<표 2- 2> 관광사업체 세부 현황	5
<표 2- 3> 제주지역 연도별 관광객 증감 현황	6
<표 2- 4> 연도별 도내총생산과 관광수입 현황	7
<표 2- 5> 1995년 이후 연도별 내·외국인 관광객 및 관광수입 현황	8
<표 2- 6> 2001년 이후 국적별 외국인 관광객 현황	9
<표 2- 7> 제주의 주요 관광자원 현황	10
<표 2- 8> 제주의 주요 공영관광지 현황	11
<표 2- 9> 제주의 주요 사설관광지	13
<표 2-10> 일본인 해외여행 연도별 추세비교	15
<표 2-11> 연도별 엔화 환율 변동	16
<표 2-12> 방한 일본인 관광객 현황	18
<표 2-13> 중국의 장단점	26
<표 2-14> 대만의 장단점	26
<표 2-15> 홍콩의 장단점	26
<표 2-16> 싱가포르의 장단점	27
<표 2-17> 괌/하와이의 장단점	27
<표 2-18> 한국의 장단점	27
<표 3- 1> 일본 현지 관계자와의 인터뷰 조사결과	35
<표 3- 2> 2006년 이후 해외수학여행 추이	36
<표 3- 3> 학교별 해외수학여행 실태	36
<표 3- 4> 중학교 해외수학여행 대상지	37
<표 3- 5> 고등학교 해외수학여행 대상지	37
<표 3- 6> 학교별 월별 실시비율	37
<표 3- 7> 해외수학여행 숙박일수	38
<표 3- 8> 학교별 해외수학여행경비	39

<표 3- 9> 방문국별 해외수학여행경비	39
<표 3-10> JTB와 KNT의 제주 관련 관광상품 분석결과	43
<표 4- 1> 일본인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방안	53
[그림 3- 1] 한국종합관광상품 ‘여름 한국’	40
[그림 3- 2] 일본 JTB의 서울/제주관광상품	41
[그림 3- 3] 일본 JTB의 제주단독상품	41
[그림 3- 4] 제주관광상품 ‘세계자연유산기행’	42
[그림 3- 5] KNT의 제주관광상품 ‘맛있는 제주도’	43

I .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 여행은 학생에게 현장체험과 문화교류 및 사회적 상호관계를 형성시키는 기회임. 특히 수학여행을 통한 초기 여행경험은 성인기의 여행행동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수학여행에서 좋은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좋은 여행습관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수학여행객 개인은 물론 제주관광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과거 중장년층 남성들의 유흥관광지라는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쇼핑/문화체험/휴양과 같은 고부가가치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일본인 수학여행객들의 관광행태 및 한국관광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요구와 욕구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제주관광의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는 제주관광의 체질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
- 일본인 해외수학여행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선호도 2위의 수학여행지로 보고되고 있지만, 제주로의 수학여행은 아직은 미약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수용태세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시 됨.
-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일본인 수학여행단 유치에 성장가능성이 높은 틈새시장으로 보고, 지난 8월 수학여행 담당 교직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노력을 기울이는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는 관광시장으로 성장한 일본인 수학여행단들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제주가 이들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과 정책적 대안의 필요성에 의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음.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본인 수학여행단들의 관광요구와 욕구 및 관광행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일본현지 여행사의 상품분석을 통하여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상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는 데 있음.
- 이와 같은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첫째, 관련 연구 및 조사자료를 통하여 일본인 수학여행단들의 해외여행 실태를 파악함.
 - 둘째, 일본 현지의 주요 여행사들에 대한 조사 및 현장면접을 통하여 일본인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한 상품개발 및 마케팅 방안을 마련함.

3. 연구 방법

- 국내외 문헌 연구와 자료 분석
- 일본수학여행 관련 기관 및 여행사 관계자들과의 현장면접조사

4. 연구 구성

- 제1장은 연구의 개요부분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및 연구의 구성을 다룸.
- 제2장은 현황 및 실태 분석부분으로 제주관광의 주요 현황과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실태, 일본인 수학여행단의 해외여행 실태, 주요 경쟁지역의 일본인 수학여행단 유치 전략 등을 분석하였음.

- 제3장은 시장 조사 부분으로 일본 현지의 주요 관련 기관 및 여행사 관계자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하여 일본인 수학여행단의 유치를 위한 기초자료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제4장은 현황 및 실태 분석과 시장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제주관광에 적용하고, 효과적인 일본인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 방안과 홍보·마케팅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Ⅱ. 현황 및 실태 분석

1. 제주관광의 현황

가. 관광 관련 사업체 현황

- 업종별 분류기준에 의거 관광사업체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제주지역의 관광사업체 수는 2009년말 기준으로 총 884개 업체임.
- 관광사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여행업이 648개 업체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관광숙박업이 104개 업체, 관광객이용시설업 51개 업체, 유원시설업 12개 업체, 국제회의업 11개 업체, 카지노업 8개 업체 등으로 나타났음.
- 또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는 아니지만 관광 관련 사업체들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한 휴양펜션업 45개 업체를 비롯하여 여관, 여인숙 등의 일반숙박업이 705개 업체, 자동차운송사업 162개 업체, 승마장업 25개 업체, 골프장 34개 업체, 유람선업 5개 업체 등 총 1,124개 업체가 2009년말 현재 관광 관련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1> 관광사업체 및 관련 사업체 현황(2009년말 기준)

	업 체 명	업체수	업 체 내 역	근 거
	합 계	2,008		
광 진 흥 법	소 계	884		
	여 행 업	648	일반 61, 국외 91, 국내 496	관광진흥법 제 3 조
	관 광 숙 박 업	104	관광호텔 51, 콘도미니엄 37, 한국전통호텔 1, 가족호텔 15	
	관광객이용시설업	51	전문휴양업 25, 관광유람선업 5,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21	
	유 원 시 설 업	12	일반유원시설업 10, 기타유원시설업 2	
	국 제 회 의 업	11	국제회의기획업 10, 국제회의시설업 1	
	카 지 노 업	8	제주시 5, 서귀포시 3	
	관광편의시설업	50	관광식당업 37, 관광사진업 1, 관광유희음식점업 8, 외국인전용휴휴음식점업 4	
기 타 법 령	소 계	1,124		
	휴 양 펜 셴 업	45	제주시 23, 서귀포시 22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골 프 장	34	제주시 18, 서귀포시 16	이용 에관한법률
	일 반 숙 박 업	705	제주시 527, 서귀포시 178	부가가치세법
	승 마 장 업	25	제주시 12, 서귀포시 13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유 람 선 업	5	제주시 2, 서귀포시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오 일 장	10	제주시 4, 서귀포시 6	
	보세판매장(면세점)	7	제주시 5, 서귀포시 2	관세법
	자동차운송사업체	162	시내·외버스 13, 전세버스 58, 렌트카 57, 택시 34(총 대수 5,424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 광 지	131	공영관광지 53(타기관포함), 사설관광지 78	관광진흥법 문화재보호법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0 관광행정현황

<표 2-2> 관광사업체 세부 현황(2009년말 기준)

구 분		행정시별	계	제주시	서귀포시
합 계			884	754	132
여 행 업	계		648	603	45
	일반여행업		61	58	3
	국외여행업		91	84	7
	국내여행업		496	461	35
관 광 숙 박 업	계		104	65	39
	호 텔 업	소 계	67	41	26
		관 광 호 텔 업	51	35	16
		가 족 호 텔	15	6	9
		한국전통호텔업	1	-	1
휴양콘도미니엄업		37	24	13	
관 광 객 이 용 시 설 업	계		51	34	17
	전 문 휴 양 업		25	12	13
	관 광 유 략 선 업		5	2	3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21	20	1
유 원 시 설 업	계		12	3	9
	일반유원시설업		10	2	8
	기타유원시설업		2	1	1
국 제 회 의 업	계		11	9	2
	국제회의기획업		10	9	1
	국제회의시설업		1	-	1
카 지 노 업(계)			8	5	3
관 광 편 의 시 설 업	계		50	35	15
	관 광 음 식 점 업	소 계	8	5	3
		한 국 음 식 점 업	3	2	1
		관 광 극 장 식 당 업	5	3	2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		4	3	1
	관 광 식 당 업		37	26	11
	관 광 사 진 업		1	1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0 관광행정현황

나. 관광객 및 관광수입 변화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를 찾은 관광객은 지난 1977년 50만명을 돌파한 이후 '83년 100만명, '88년 200만명, '91년 300만명, '96년 400만명 돌파추세를 보이더니 정확히 30여년이 지난 금년 2010년에는 12배나 되는 700만 돌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2-3> 제주지역 연도별 관광객 증감 현황

연도별	관광객수	비 고
1960년 이전	3,000명 내외	대부분 수학여행단, 학술조사단
1966	10만명 돌파	제1횡단도로 개통 ('61-'66)
1977	50만명 돌파	제주 - 부산간 카페리 취항
1983	100만명 돌파	
1988	200만명 돌파	
1991	300만명 돌파	
1996	400만명 돌파	
2003	491만명 돌파	
2004	493만명 돌파	
2005	502만명 돌파	
2006	531만명 돌파	2006 제주방문의 해
2007	543만명 돌파	
2008	580만명 돌파	
2009	650만명 돌파	
2010	700만명 전망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0 관광행정현황

-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세에 힘입어 관광수입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제주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큰 상황임.

- 관광수입은 지난 '86년 감골수입을 초과한 이후 '96년에는 1조원대를 돌파하였고, 2010년에는 약 3조원 정도의 관광수입이 예상되고 있음.

<표 2-4> 연도별 도내총생산과 관광수입 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도내총생산/관광수입			비 고
	도내총생산	관광수입	%	
1960		0.14		총생산(61) : 26억원
1970	240	8	3	
1980	3,752.6	260	7	
1986	8,922	1,438	16	관광수입 : 감골수입(1,416억원) 추월
1990	18,836	4,319	23	
1995	41,969	9,814	23	
1996	45,318	10,179	22	1조원 돌파
1997	48,409	10,759	22	산업별 : 1차 241%, 2차 3.7%, 3차 72.2%
1998	46,076	9,558	21	
1999	48,951	10,295	21	
2000	52,895	14,975	28	
2001	55,912	14,954	27	
2002	63,017	15,265	24	
2003	67,855	15,661	23	
2004	73,431	16,787	23	
2005	79,166	17,202	22	
2006	75,961	18,468	24	
2007	80,696	22,144	27	
2008	89,591	23,736	26	도내총생산 2008년잠정치
2009		28,282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0 관광행정현황

<표 2-5> 1995년 이후 연도별 내·외국인 관광객 및 관광수입 현황

분	전 국 (외국인 : 천명)	제주특별자치도					
		관 광 객 (천명)			관 광 수 입 (억원)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95	3,753	3,997	3,755	242	9,814	7,844	1,970
'96	3,684	4,144	3,935	209	10,179	8,400	1,779
'97	3,908	4,363	4,179	184	10,756	9,143	1,613
'98	4,250	3,291	3,067	224	9,558	7,523	2,035
'99	4,660	3,667	3,420	247	10,295	8,037	2,258
2000	5,000	4,110	3,822	288	14,975	10,877	4,098
2001	5,200	4,197	3,907	290	14,954	10,917	4,037
2002	5,347	4,515	4,226	289	15,265	11,525	3,740
2003	4,753	4,913	4,692	221	15,661	13,073	2,588
2004	5,818	4,932	4,603	329	16,787	13,079	3,708
2005	6,021	5,020	4,641	379	17,202	13,031	4,171
2006	6,155	5,312	4,852	460	18,468	13,460	5,008
2007	6,448	5,429	4,888	541	22,144	16,034	6,110
2008	6,890	5,822	5,281	540	23,736	17,537	6,199
2009	7,817	6,523	5,891	632	28,282	21,018	7,264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0 관광행정현황

<표 2-6> 2001년 이후 국적별 외국인 관광객 현황

(단위 : 명)

	계	일 본	중 국	대 만	홍 콩	싱가폴	말레 이시아	미 국	기 타
2001	290,050 (100%)	158,026 (54.5%)	71,650 (24.7%)	2,414 (0.8%)	20,329 (7.0%)	9,506 (3.3%)		10,935 (3.8%)	17,190 (5.9%)
2002	289,496 (100%)	140,779 (48.6%)	92,805 (32.1%)	940 (0.3%)	7,838 (2.7%)	11,363 (3.9%)		12,005 (4.1%)	23,766 (8.2%)
2003	221,017 (100%)	101,808 (46.1%)	69,671 (31.5%)	9,893 (4.5%)	5,173 (2.3%)	8,762 (4.0%)		10,753 (4.9%)	14,957 (6.8%)
2004	329,215 (100%)	140,351 (42.6%)	101,236 (30.8%)	21,435 (6.5%)	7,609 (2.3%)	13,472 (4.1%)		17,518 (5.3%)	27,594 (8.4%)
2005	378,723 (100%)	151,419 (40.0%)	115,199 (30.4%)	39,552 (10.4%)	8,582 (2.3%)	13,841 (3.7%)		18,528 (4.9%)	28,602 (7.6%)
2006	460,360 (100%)	183,168 (39.8%)	142,912 (31.0%)	57,358 (12.5%)	8,376 (1.8%)	18,167 (3.9%)		19,329 (4.2%)	31,050 (6.7%)
2007	541,274 (100%)	183,240 (33.9%)	176,878 (32.7%)	93,169 (17.2%)	8,683 (1.6%)	21,699 (4.0%)	10,270 (1.9%)	20,478 (3.8%)	26,857 (4.9%)
2008	540,516 (100%)	177,459 (32.8%)	174,902 (32.4%)	67,993 (12.6%)	11,365 (2.1%)	28,580 (5.3%)	13,220 (2.4%)	23,349 (4.3%)	43,648 (8.1%)
2009	632,354 (100%)	183,168 (29.0%)	258,414 (40.9%)	41,480 (6.6%)	15,079 (2.4%)	32,727 (5.2%)	14,806 (2.3%)	23,712 (3.7%)	62,968 (9.9%)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0 관광행정현황

다. 관광자원 및 관광지 현황

<표 2-7> 제주의 주요 관광자원 현황

구 분	개 소	주 요 안 내
영 주 심 경	10	성산일출, 녹담만설, 굴림추색, 영구춘화, 산포조어, 고수목마, 정방하폭, 산방굴사, 사봉낙조, 영실기암
新 영주심경	10	1. 철새들의 낙원, 하도리 2. 눈이 그린 그림, 1100도로 3. 이어도가 보이는 언덕, 송악산 4. 사랑의 언덕, 섬지코지 5. 신이 빛은 조각, 지삿개 주상절리 6. 용(龍)이 사는 연못, 용연 7.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 돈내코 8. 바람이 빛은 곡선미, 아부오름 9. 노을이 아름다운 포구, 자구내 포구 10. 섬 속의 섬, 우도
계 곡	6	탐라계곡, 구구계곡, 안덕계곡, 무수천, 돈내코, 수악계곡
폭포 및 소연	6	천지연, 천제연, 정방폭포, 용연, 영도폭포, 용소연포
동 굴	10	만장굴, 빌레못굴, 김녕사굴, 미천굴, 소천굴, 협재굴, 쌍용굴, 와흘굴, 구린굴, 황금굴
기 암	14	용두암, 성산기암, 외돌개, 바람바위, 영실기암, 방선문, 절부암, 우두암, 용암수형, 산방산, 백록담, 성판악, 삼각봉, 왕관(릉)
수 림	4	비자림, 동백군, 구상나무군, 철쭉
기 생 화 산	368	월랑봉(다랑쉬), 용눈이, 어승생악, 산굼부리, 송악산 등
식 물	1,841	왕벚나무, 문주란, 난(한란, 새우내란) 등
곤충 등 동물	총3,315	물장군, 왕은점 표범나비, 팔색조, 노루, 오소리, 제주족제비 등
해 수 욕 장	10	이호, 삼양, 광지, 함덕, 협재, 김녕, 화순, 중문, 표선, 신양
낙 시 터	15	사라봉, 서부두, 용두암, 도두, 다려도, 비양도, 토끼섬, 두모, 용수, 하가, 차귀도, 마라도, 우도, 추자도, 형제섬
등 산	코스 5	어리목, 영실, 성판악, 관음사, 어승생악자연학습탐방로
수 렷	2	대유수련장, 도전역(금렵구 제외)
보 물	2	관덕정, 불탑사 5층 석탑
사 적 지	1	삼성혈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0 관광행정현황

<표 2-8> 제주의 주요 공영관광지 현황

리	명 칭	주 소	관련법규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시 건입동 261	및 미술관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박물관	제주시 이도2동 539-14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주해양관리 단	우도등대	제주시 우도면 조일리 337	-
제주특별자치 도 (16)	국제평화센터	서귀포시 중문동 2572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 4·3 평화공원	제주시 봉개동 산 51-3	(약) 4·3 특별법
	제주도립미술관	제주시 연동 680-7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시 일도2동 996-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한라산국립공원	제주시 해안동 산 220-1	자연공원법
	한라수목원	제주시 연동 1000	자연환경보전법
	만장굴	제주시 구좌읍 동김녕리 41	문화재보호법
	비자림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164-1	문화재보호법
	제주돌문화공원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19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주해녀박물관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471-3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항일기념관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1156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현대미술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14-63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성산일출봉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04	문화재보호법
	갯전시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457-1	문화재보호법
	한라생태숲	제주시 용강동 산 14-1	산림자원조성 및관리에관한법률
	사려니숲길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37-1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주시 (11)	용연, 용두암	제주시 용담1동 258-4 외 5필지	문화재보호법
	수월봉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
	신비의도로(도깨비도로)	제주시 노형동 289-15	-
	제주별빛누리공원	제주시 오등동 산 34	-
	절물자연휴양림	제주시 봉개동 산 78-1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주목관아	제주시 삼도2동 43-3	문화재보호법
	삼양동선사유적	제주시 삼양2동 2126-12	문화재보호법
	중국피난선	제주시 건입동 1316-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항몽유적지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1012	문화재보호법
	우도해양도립공원	-	자연공원법
	추자해양도립공원	-	자연공원법

<표 2-8> 제주의 주요 공영관광지 현황(계속)

리	명 칭	주 소	관련법규
(23)	서귀포자연휴양림	하원동 산 1-1	
	서귀포시립미술관	서귀동 532-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기당미술관	서흥동 62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외돌개	서흥동 794	문화재보호법
	추사적거지	대정읍 안성리 1661-1	문화재보호법
	성읍민속마을	표선면 성읍리 일대	문화재보호법
	큰영(남원관광지구)	남원읍 남원리 일대	관광진흥법
	송악산	대정읍 상모리 일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섬지코지	성산읍 신양리 일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마라해양도립공원	상모리, 하모리, 가파리, 마라리, 사계리, 화순리, 대평리, 형제성과 송악산 일대	자연공원법
	서귀포해양도립공원	문성, 쇠성, 범성 및 보목~강정동 일대	자연공원법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성산리, 고성리, 오조리, 신양리해상 일대	자연공원법
	돈내코	상호동 1459 일대	관광진흥법
	안덕계곡	안덕면 감산리 345	문화재보호법
	천제연폭포	중문동 2785	문화재보호법
	천지연폭포	서귀동 973	문화재보호법
	정방폭포	동흥동 962	문화재보호법
	주상절리대	중문동 2766	문화재보호법
	서북전시관	서귀동 100-2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산방산(용머리, 하멜상선)	안덕면 사계리 산16	문화재보호법
	서귀포감귤박물관	신효동 산 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소암현중화기념관	서귀동 157-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서귀포시 하원동 산 70	과학기술기본법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0 관광행정현황

<표 2-9> 제주의 주요 사설관광지 현황

재 지	명 칭	주 소	관련법규
주 시 (38)	삼 성 혈	이도1동 1313	문 화 재 보 호 법
	제 주 경 마 공 원	애월읍 유수암리 1206	-
	제 주 러 브 랜 드	연동 680-26	및 미술관진흥법
	한 립 공 원 (· 쌍용굴)	한림읍 협재리 2487	관 광 진 흥 법
	산 굴 부 리	조천읍 교래리 산 38	문 화 재 보 호 법
	평 화 박 물 관	한경면 청수리 847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생 각 하 는 정 원	한경면 저지리 1534	관 광 진 흥 법
	유 리 의 성	한경면 저지리 3135-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 주 휘 트 니 스 타 운	애월읍 남읍리 483	관 광 진 흥 법
	제 주 미 니 미 니 랜 드	조천읍 교래리 산 56-4	관 광 진 흥 법
	테 지 움	애월읍 소길리 155-112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 주 약 어 타 운	한림읍 금악리 산 30-2	공 연 법
	방 립 원	한경면 저지리 2120-91	관 광 진 흥 법
	돌 거 북 이 수 석 박 물 관	한경면 청수리 20-3	-
	김 녕 미 로 공 원	구좌읍 김녕리 산 16	문 화 재 보 호 법
	금 능 석 물 원	한림읍 금능리 1245	-
	제 주 공 룡 랜 드	애월읍 광령리 2677-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프 시 케 월 드	애월읍 소길리 155-10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퀸 즈 하 우 스	애월읍 소길리 155-10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 주 돌 마 을 공 원	한림읍 금능리 368-2	-
	도 깨 비 공 원	조천읍 선흘리 4089-1	-
	파 크 씨 던 랜 드	구좌읍 김녕리 157-4	관 광 진 흥 법
	북 촌 돌 하 르 방 공 원	조천읍 북촌리 976	-
	제 주 아 트 랜 드	구좌읍 송당리 2764-1	-
	제 주 요	애월읍 광령리 97	-
	제 주 민 속 박 물 관	삼사석로 2895번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나 비 전 시 관	한경면 용수리 3533	-
	더 마 파 크	한림읍 월림리 산 8	관 광 진 흥 법
	우 도 박 물 관	우도면 서광리 1457	-
	명 도 암 관 광 휴 양 목 장	봉개동 848-1	-
	선녀와나무꾼테마공원	조천읍 선흘리 1997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코 끼 리 랜 드	회천동 산 1번지	-
	경 덕 흙 스프링스	조천읍 선흘리 600	-
	삼 국 지 랜 드	조천읍 교래리 786-15	공 연 법
	제 주 티 파 크	연동 260-17	-
	초 쿨 릿 체 험 장	오라2동 860-1	-
	제 주 오 름 공 원	오라2동 1820	-
	제 주 아 트 리 움	해안동 2137-1	공 연 법

<표 2-9> 제주의 주요 사설관광지 현황(계속)

재 지	명 칭	주 소	관련법규	
(41)	퍼 시 픽 랜 드	2950 -5	관 광 진 흥 법	
	여 미 지	색달동 2920	관 광 진 흥 법	
	테 디 베 어 유 지 엄	색달동 2889	관 광 진 흥 법	
	대 유 산 업	상예동 144	관 광 진 흥 법	
	소 리 섬 박 물 관	색달동 2864-36	및 미술관진흥법	
	아 프 리 카 박 물 관	대포동 1833	관 광 진 흥 법	
	세 계 성 문 화 박 물 관	법환동 914	-	
	닥 증 이 인 형 박 물 관	법환동 914	-	
	위 티 월 드	법환동 914	관 광 진 흥 법	
	제 주 화 석 박 물 관	표선면 하천리 357-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석 부 작 테 마 공 원	호근동 569-2	관 광 진 흥 법	
	서 귀 포 미 로 공 원	법환동 877	-	
	세 려 드	열 기 구	법환동 877	향 공 법
		유 로 번 지	법환동 877	-
		익 스트림 아일랜드	법환동 877	
	카 멜 리 아 힐	안덕면 상창리 271	농 어 촌 정 비 법	
	올 인 하 우 스	성산읍 고성리 57	-	
	제 주 민 속 촌	표선면 표선리 40-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 주 도 예 촌	대정읍 영랑리 1	-	
	제 주 조 각 공 원	안덕면 덕수리 산 27	자 연 공 원 법	
	신 영 영 화 박 물 관	남원읍 남원리 238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소 인 국 테 마 파 크	안덕면 서광리 725	관 광 진 흥 법	
	일 출 랜 드	성산읍 삼달리 1010	관 광 진 흥 법	
	제 주 다 원	색달동 산 50	-	
	정 석 향 공 관	표선면 가시리 3765-2	관 광 진 흥 법	
	오 설 록 녹 차 박 물 관	안덕면 서광리 1235-3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초 콜 렛 박 물 관	대정읍 일과리 551-18	-	
	건 강 과 성 박 물 관	안덕면 감산리 1736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 주 서 커 스 월 드	안덕면 동광리 886	공 연 법	
	자 연 사 랑 박 물 관	표선면 가시리 1920-1	-	
	이 레 제 주 조 량 말 타 운	표선면 성읍리 2684	공 연 법	
	김 영 갑 갤 러 리	성산읍 삼달리 437-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 와 미 로 공 원	안덕면 사계리 516	-	
	제 주 허 브 동 산	표선면 표선리 2608	농 어 촌 정 비 법	
	세 계 자 동 차 박 물 관	안덕면 상창리 산63번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휴 애 리 (생 활 공 원)	신례리 2083	농 어 촌 정 비 법	
	성 산 포 조 가 비 박 물 관	성산읍 시흥리 12-87	-	
	트 릭 아 트 유 지 엄	표선면 성읍리 238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조 안 베 어 박 물 관	대포동 1959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황 금 룡 골 든 힐 허 브 팜	대정읍 신도리 10	-	
	이 상 한 나 라 의 엘 리 스	안덕면 서광리 773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0 관광행정현황

2. 일본인 해외관광 동향 및 전망

- 일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신종인플루엔자 영향 감소, 엔고현상 지속, 하네다, 나리타공항의 활주로 확대 및 운항편수 증편과 더불어 단기적이고 경제적인 근거리 여행에 대한 수요가 일본인 해외여행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임.

<표 2-10> 일본인 해외여행 연도별 추세비교

구분	2010년 전망		2009년 추정		2008년 결과
	전망	전년도 대비비율	추정	전년도 대비비율	결과
총해외 여행자수	16.80 백만명	108.9	15.43 백만명	96.5	15.99 백만명
평균해외 여행경비	255,000엔 (2,742\$)	98.4	259,200엔 (2,787\$)	81.8	316,900엔 (3,408\$)
총해외 여행경비	4,28백억엔 (460억불)	107.0	4,00백억엔 (430억불)	78.9	5,07백억엔 (545억불)
평균해외 여행일수	2.10	-0.15	2.25	-0.26	2.51

자료 : Prospective Travel Trends in 2010, JTB

- 2008년 9월부터 시작된 세계금융위기에서 일본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2010년도의 빠른 회복 추세를 판단하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농후함. 특히 도요타, JAL 항공 등 일본기업들의 동반 추락현상이 향후 불확실성 및 소비자의 기대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금융위기이후 정점을 찍었던 엔고현상이 다소 누그러지기는 하였으나, 국내외 경제연구소들이 2010년도 엔고현상의 지속을 여전히 예견하고 있음. 디플레이션과 더불어 엔고현상은 물가 및 여행비용에 대해 비교적 저렴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여행동기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조사됨.
 - 재단법인 일본교통공사(JTBF)의 '09년말 조사에서도 *정액급부금을 여가·레저 용도로 지출하려는 일본인이 17.7% 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7할 가까이 여행에 사용한 것으로 집계됨.
- * 정액급부금 : 일본 정부가 소비진작 차원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성인 한 사람 당 12,000엔 18세 이하 아이의 경우는 2만엔씩 주기로 한 정액생활지원금.

<표 2-11> 연도별 엔화 환율 변동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One US Dollar	105.21	119.07	120.11	115.15	92.03	92.71
One GB Pound	203.81	207.74	237.66	231.990	135.83	150.40
One EURO	143.11	141.33	158.00	168.16	129.46	132.98
100 Korean Won	10.22	11.96	13.02	12.36	7.47	8.01
One Hong kong Dollar	13.82	15.66	15.75	15.05	12.18	12.26

자료 : The Bank of Mitsubishi - Tokyo UFJ

3. 정부의 일본인 관광객 유치 정책

가. 기본 방향

1관광시장인 일본시장의 방한관광객 성장추세 유지

- 일본 실버 시장 관광목적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실버층 타겟 방한 고급 방한 상품을 개발하여 실버층 유치 확대
- 지역관광의 수용태세를 정비하고, 음식 및 쇼핑관광 환경개선 및 지역 테마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방관광으로의 방한 일본인 확대
- FIT 대상 온라인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옵션 관광상품을 다양화하여 방한 일본인 FIT 여행객 유치 확대

나. 현황 및 문제점

■ 방한 일본인 관광객의 감소 현상 발생

- 일본은 2020년 세계 5대 아웃바운드 송출국으로 성장될 것으로 전망, 한국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핵심시장으로서 최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엔화약세 요인으로 인해 일본인 전체 해외여행객 성장률은 2006년 0.8%에 그치는 등 정체 현상을 보였음.
- 방한관광시장의 최대 소비자인 방한 일본인수는 2000년 이후 계속 정체 상태에 머물렀으며, 특히 한류 붐이 일었던 2004년 이후 방한 일본인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다가 2006년에는 감소세임.
- 2007년 현재 일본인의 한국 방문은 223만 명으로 전체 방한 시장의 35% 차지하고 있음.

- 2008년의 일본인 방문객 수는 약간 증가하여, 237만명을 기록
- 2009년에는 엔화강세에 따른 일본인 방한객의 증가로 300만명 넘어섬

< 2-12> 방한 일본인 관광객 현황

(단위: 천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일본인 관광객 수	2,443	2,439	2,339	2,235	2,378
구성비	42%	40.5%	38%	34.7%	34.5%

자료: 한국관광공사 관광통계 각 년도

- 2006년 일본인 아웃바운드 목적지 순위는 중국, 미국, 한국, 하와이, 태국 순으로 나타남
- 지난 5년간 국가별 성장률에 따르면, 중국, 태국, 홍콩, 대만,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권 국가로의 일본인 여행객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반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캐나다, 하와이 등의 미주와 대양주로의 여행자는 감소함.

■ 차별화된 매력성의 개발 요구

- 일본인 관광객의 감소 현상은 대외적으로는 중국, 홍콩, 대만 및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경쟁상황에서 한국여행의 차별화된 매력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데서 1차적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내부적으로는 일본인 관광객의 구미를 맞출 수 있는 수준의 여행환경이 조성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한국은 아시아국가 중에서 일본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해외여행지이며, 아시아 국가 중 방문희망 순위가 가장 높음. 그러나 일본인에게 한국은 '가깝고 저렴한 관광지'의 이미지가 강하며, '불거리가 많은 곳', '휴양지', '가족 여행지'의 이미지는 매우 약함 (한국관광공사, 일본 관광 소비자 마

케팅 조사 2007)

- 한국의 새로운 이미지 확립을 통한 주변국과 차별화된 매력 증가 노력이 필요함.

■ 일본인 관광객의 유치 타겟 제고의 필요성

- 방한 관광객 계층은 시대별로 변화하고 있는데, 90년대 이전 30대~40대 남성이, 90년대는 20대~30대 여성이, 2000년대 초반에는 40대~50대 여성이, 2007년 이후 단카이 실버세대 및 개별 자유여행자가 증가함.
- 특히, 일본은 2015년에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베이비붐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올해 60세 진입을 시작함에 따라 본격적인 실버시장 출현함.
- 50세 이상 노년층의 30%가 연1회 해외여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실버시장은 기존의 “건강과 체력에 대한 불안을 있어도 여행을 하고 싶은 집단으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시장”이 아닌 “시간적·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음.
- 일본 실버층이 향후 한국의 지역방문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실제 우리의 지역현실은 일본 실버층을 수용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실버관광 추진을 위한 한국관광의 문제점으로는 (1) 저가 관광 이미지가 강하고 일부 실버계층에게는 부정적 이미지, (2) 관광매력 및 지역 인지도의 취약, (3) 숙박, 음식, 안내, 쇼핑, 안내·정보 등 지역관광 인프라/서비스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음.
- 개선방안으로 실버계층을 겨냥한 한국의 관광 상품을 다변화하여 만족도를 제고하고, 저가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불식, 중/고가 여행으로서의 이미지 구축이 필요함.
- 변화된 일본인 방한시장 분석을 통해, 유치 타겟을 재고려, 방한 주력 계층

인 40대~50대 중장년 여성층과, 실버세대, 개별자유여행객을 고려하여 마케팅 전략 수행이 필요함.

다. 세부추진과제

■ 일본인 관광객 지역 확산을 위한 지역 관광 수용태세 정비

- 일본어 관광안내 서비스 지원 확대
 - 지자체 연계 지역의 일본어 관광안내지도의 제작 확대 및 접근성, 편의성 제고
 - 교통, 숙박정보, 다양한 관광 상품에 대한 일본어 안내서 제작 지원
 - 일본인 관광객 응대 지역 문화 관광해설가 육성
- 교통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협의체구성 및 개선 방안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철도청, 버스운성사업조합, 항공사 등으로 구성 협의체를 통해 개선 방안 마련
 - 한국 내 지역 공항과 일본 주요 공항 간 직항노선 신설 및 확충
 - FIT 여행객 대상 교통편과 간단한 해설이 포함된 관광으로 구성된 지방관광옵션 투어상품의 개발
- 지역 숙박 개선 사업지원으로 관광객 유치 기반 마련
 - 지방의 중저가 숙박업체 시설, 이미지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제도적 지원 필요
 - 일본인 관광객은 대부분 호텔을 이용하는 현실상, 지방도시의 숙박 수용태세 및 서비스 수준이 미흡해 지방연계상품 및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의 어려움
 - 중소형 관광호텔의 지방체인화 사업 추진
 - 숙박업체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지방의 숙박시설의 환경 개선

■ 지역의 고유의 음식 및 쇼핑 관광 환경 개선

- 지역음식문화연구회 구성 및 운영 지원으로 음식관광상품 개발 지원
 - 지역특산물 활용한 신메뉴 개발, 워크숍 개최, 음식 관광 상품 개발 지원
 - 지자체 연결 철도 도시락 상품개발, 우수사례 홍보 등
- 지역음식 우수식당 인증제 도입
 - 메뉴얼 개발지원, 외식업소와 연계 지역음식 관광 상품 개발 지원
- 지역쇼핑환경의 개선
 - 일본관광객의 편리한 쇼핑을 위해 지역 쇼핑인프라 개선 및 안내 지원 확대
 - 지역의 쇼핑 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한국 관광 명품점 활성화

■ 지역 테마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확대

- 한국 전통 고택, 전통요리, 도자기 등 한국의 전통적 관광매력 발굴 및 홍보강화
 - 안동, 전주, 문경 등 지역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테마투어버스 개발
 - 실버계층의 문화적 지적 욕구와 1일 이동성을 고려한 홍콩의 마이버스, 유럽의 JAL 버스 사례 분석을 통한 개발
- 지역의 직항노선 소재지를 중심으로 테마 관광 상품의 개발
 - 신규 방한 관광 상품 개발, 브랜드 마케팅, 소비자 대상 이벤트, 홍보 PR 등 전방위 마케팅 활동 추진
 - 직항노선 소재 관할청과 항공사 등 공동마케팅 실시 및 신규 취항노선 지방 내 방한 관광 캠페인 실시
- 일본 주요여행사와 공동으로 테마 관광상품 개발 및 새로운 문화체험 상품 개발

- 음식, 쇼핑, 미용 등을 활용한 상품을 일본 주요 여행사와 공동으로 개발(JTB, Hankyu Travel 등)

■ 일본인 개별여행객(FIT) 유치 확대 추진

- FIT 대상 온라인 여행상품 개발
 - 온라인 마케팅 사업, 모바일 서비스 사업 전개
- 여행사 연계 고품질 현지 관광 프로그램 개발
 - 궁중요리, 한글, 도자기, 전통차, 전통공예, 난타, 국악공연, 재즈페스티벌, 점프 공연 등 국내 각 지역의 축제 및 공연, 이벤트
 - 한스타일, 미용, 음식, 쇼핑 관광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고품질의 관광 프로그램 개발
 - 기개발, 판매되고 있는 현지 관광 프로그램 중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홍보 및 판촉활동 지원
- 한류를 활용한 일본 여성 관광객 대상 관광 상품 개발
 - 일본 여성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드라마·영화·CF 촬영현장 투어, 스타 대형 팬미팅과 미용·쇼핑 등 활성화
- 일본 내 한국여행 가이드북 제작사 및 여행 작가 초청사업 추진
 - 일본의 주요 여행가이드 북 내에 한국여행 콘텐츠를 지역별/테마별 심화 확대시키기 위해 편집자, 여행 작가 초청사업 추진
 - 지역별, 테마별 별책 제작유도 및 공동 프로모션 추진
- 한국 관광관련 TV 프로그램 제작 지원
 - 일본연예인을 활용하여 일본 후지TV, 일본 TV, 유력 케이블 방송사 등과 연계하여, 일본인의 최신 여행 트렌드와 한국의 경쟁력 있는 여행소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제작
 - 주제로는 식도락, 도심의 주요거리산책 (삼청동길, 가회동 한옥마을길, 도심 먹자골목 등), 지하철, 철도 거점와 연계한 여행코스, 한국

인의 라이프스타일 체험

- 한스타일 및 한류소재를 적극 활용

<참고 자료>

- ▶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는 TV 도쿄 '한국관광 미니 프로그램'이 있으며, 매주 정해진 요일, 시간대에 방영되는 6분짜리 미니프로그램으로, 한국관광 미니프로그램을 TV로 테레비 도쿄에서 방영
- ▶ 호주관광청의 경우 '자유여행'테마 TV프로그램을 통한 홍보의 일환으로 국내 배우들의 리얼리티 호주여행 체험기를 MTV를 통해 방영 한 바 있음 (출연 연예인: 김민준, 오지호, 송지호 등 한국 톱스타)

■ 방한 교육여행, 수학여행 관광 확대 추진

- 일본 중, 고등학교, 일본 전문대학교 중심의 대학교, 일반인 교육여행을 대상으로 대규모 단체 관광객 유치
 - 영어마을,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경희궁, 덕수궁, 경찰박물관, 민속촌, 안동하회마을 등 한국의 역사 및 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관광 상품
 - 전통문화, 과학, 산업을 포괄하여 다양한 체험과 교류를 통한 문화이해 중심의 상품개발
- 학교 간 교류 중심의 수학 여행단 유치
 - 일본 청소년의 방한 확대를 위해 일본학교와의 자매결연 등 상호 교류 관계 증진
 - 방한수학여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 일본의 교류 희망학교와 한국 내 희망학교와의 매칭 체계 마련
- 여행사, 지자체, 일본학교 연계 수학여행 관광 확대 추진
 - 일본학교의 한국 교육여행 종합 상담창구 기능 수행
 - 국내여행사와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여행프로그램 개발 및 여행사 지원
 - 일본학교 및 교육여행 투어 취급 전문 여행사를 대상으로 국내여행사, 지자체 등과 함께 공동 설명회, 상담회 개최

■ 일본 실버시장을 새로운 전략 시장 공략

- 일본 실버 시장 관광목적지로서의 이미지 구축
 - 일본 실버계층의 한국의 정치, 역사에 관련된 부정적 이미지, 저가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이미지 제고 추진
 - ‘안전’, ‘편안’, ‘우대’, ‘문화’, ‘향수’에 기초한 한국관광 이미지 전략 투자
 - 실버층에게 접근성이 높은 전문잡지, 텔레비전을 통한 한국의 전통 문화, 건강법, 요리 등 문화콘텐츠 홍보
 - 홍보대사 임명을 통해, 광고기획에 활동적, 문화적 이미지를 가진 역할모델 기용 “신실버”에 접근
- 일본 실버층 관광편의를 위한 우대제도 정비
 - 지하철, 버스, 기차 등의 대중교통 수단 및 주요 관광지 할인 제도 도입 검토
 - 외국 일부 공공문화시설에 국한되어 있는 할인혜택을 외국인에게도 확대 적용 추진
- 일본인 실버층 타켓 테마상품 개발
 - 문화, 지역, 4계, 맛 등 한국을 방문 실버계층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 테마 활용
 -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자연 관람형, 건강 관광 상품, 음식 관광 상품개발(예를 들어, 김치, 묵, 청국장, 황태 등 식도락 체험상품 개발)
 - 일본관광객 대상 한일 비교문화·지역체험상품 등 맞춤형 테마상품 개발로 중장년층(전후세대) 집중 유치
 - 웅천왜성, 서생포왜성, 남해안 왜성 등 역사비교상품 및 소쇄원, 운현궁 등 조경 비교문화상품 개발

○ 일본 실버층 선호 식품 집중 육성

-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별, 계절별 신메뉴를 개발을 지원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음식을 적극적으로 홍보

<참고 자료>
 ▶ 현재 일본 실버관광객의 쇼핑상품은 대부분 김치, 김, 젓갈 등의 식품이 대부분이 이나, 일본의 경우 전세대에 걸쳐 특정 국가나 지역의 새로운 음식을 경험하기 위한 구루메(Gourmet) 여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실버계층의 경우 지역식, 계절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라. 추진계획

(단위: 억원)

사업명	재원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재원조달방안
지역 관광 수용태세 정비 지원	국비	15	15	15	20	20	85	기금
	지방비	-	-	-	-	-	-	
	민자	-	-	-	-	-	-	
	소계	15	15	15	20	20	85	
지역 음식 및 쇼핑 관광 환경 개선	국비	15	15	15	20	20	85	기금
	지방비	-	-	-	-	-	-	
	민자	-	-	-	-	-	-	
	소계	15	15	15	20	20	85	
지역 테마 관광 상품 개발 및 지원 확대	국비	15	15	15	20	20	85	기금
	지방비	-	-	-	-	-	-	
	민자	-	-	-	-	-	-	
	소계	15	15	15	20	20	85	
개별여행객(FIT) 유치 확대 사업 추진	국비	15	15	15	20	20	85	기금
	지방비	-	-	-	-	-	-	
	민자	-	-	-	-	-	-	
	소계	15	15	15	20	20	85	
방한 교육여행·수학여행 관광 확대	국비	15	10	5	5	5	40	기금
	지방비	-	-	-	-	-	-	
	민자	-	-	-	-	-	-	
	소계	15	10	5	5	5	40	
일본 실버시장 유치확대 사업 추진	국비	15	15	15	18	18	81	기금
	지방비	-	-	-	-	-	-	
	민자	-	-	-	-	-	-	
	소계	15	15	15	18	18	81	

4. 경쟁지역의 일본인관광객 유치 장단점

<표 2-13> 중국의 장단점

강 점	약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자연·문화유산, 음식 등 관광소재가 매우 풍부함 ◦ 성장 가능성으로 인해 일본 정부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등 투자활동이 활발함 ◦ 중국경제의 성장으로 비즈니스 목적 방문객이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내 반일 감정으로 인한 여행 안전성 문제 ◦ 위생 문제 ◦ 외국인 관광객 수요태세 미비 ◦ 관광지가 대도시에 편중되는 경향

<표 2-14> 대만의 장단점

강 점	약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 ◦ 식도락관광에 큰 매력을 보임 ◦ 일본문화와 일본인에 대해 우호적 ◦ 고속철도의 개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국에 비하여 한정된 관광소재 ◦ 랜드비용이 타국에 비해 비싼 경향

<표 2-15> 홍콩의 장단점

강 점	약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핑, 야경, 식도락 등의 관광매력 ◦ 홍콩디즈니랜드 오픈(2005.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소재가 부족하여 상품구성이 단순 * 홍콩관광청은 최근 들어 역사유적, 박물관 등의 홍보를 강화

<표 2-16> 싱가포르의 장단점

강 점	약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안·위생상 강점 ◦ 식도락, 야경, 쇼핑 등의 관광매력 ◦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문화체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이 작아 관광소재가 부족하여 상품구성이 단순 *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과 연계한 상품 개발

<표 2-17> 괌/하와이의 장단점

강 점	약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관광소재 ◦ 일본인의 비치리조트 열풍 ◦ 재방문율이 매우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와이의 경우 호텔예약난 증가 ◦ 항공좌석난 증가

<표 2-18> 한국의 장단점

강 점	약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접근성 최고 ◦ 남대문과 동대문 등 쇼핑관광 ◦ 한류에 따른 관심 폭발 ◦ 문화교류에 따른 동질감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일분위기에 따른 불안감 ◦ 분단국이라는 이미지

Ⅲ. 시장 조사

1. 조사 개요

가. 조사목적

- 일본인 수학여행단 유치 확대방안의 모색

나. 조사시기

- 2010년 8월 2일 ~ 6일(5일간)

다. 조사지역

- 일본 도쿄와 시즈오카 등

라. 조사대상

- 일본정부관광청(JNTO), (재)일본수학여행협회, JTB, 긴키니혼투어리스트(이하 KNT)

마. 조사방법

- 마케팅 및 상품판매 담당자와의 면접, 해당 여행사의 여행상품 실태 분석

2. 조사대상 개요

가. 일본정부관광청(JNTO)

- 일본정부관광청(Japan National Tourist Organization: JNTO)는 관광을 통한 국제교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64년에 설립됨.
-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는 외국 관광객을 위한 관광객안내센터(TIC)의 운영, 관광객 유치시설의 일괄 관리, 국제회의와 무역전시회의 유치 등임.
- 또한 JNTO는 관광진흥의 일환으로 관광과 관련된 일련의 조사, 일본 관광에 관한 안내자료의 제작(인쇄물, 영상물)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해 왔고,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 13곳에 사무소를 설치함.

나. JSTB

- 공식명 : 재단법인 일본수학여행협회
- 본부소재지 : 도쿄도 츄오구 니혼바시 1-1-2
- 설립일 : 1952년 10월
- 주요 사무소 : 도쿄본부, 오사카사무소, 나고야사무소
- 주요 사업 :
 - 조사/연구 : 전국규모 수학여행실태조사
 - 발간사업 : 월간 교육여행, 교육여행연보 등
 - 정보제공 : 수학여행 관련 정보를 각급 학교에 제공 등

다. JTB

- 공식명 : 주식회사 JTB(영문명 : JTB Corp.)
- 본사소재지 : 도쿄도 시나카와구 히가시시나카와 2쵸우메 3번 11호
- 설립일 : 1963년 11월 12일(창업년월일 : 1912년 3월 12일)
- 자본금 : 23억 400만엔
- 종업원수 : 27,526명(2010년 3월 31일 현재)

- 주요 주주 : (재)일본교통공사, (주)동일본여객철도, (주)동해여객철도, (사)일본호텔협회, (주)일본항공인터내셔널, (주)전일본공수 등
- 주요 사업 :
 - 여행업
 - 여객철도회사 및 운수시관의 승차(선)권의 발매
 - 관광지 개발 및 관광시설에 관한 사업
 - 건강보양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도서의 출판판매 및 여행관계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 여행용품의 판매 및 취급에 관한 사업
 -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에 관한 사업
 - 광고 및 선전의 기획 및 이에 관한 각종 사업
 - 국제/국내회의의 개최를 위한 기획 및 위탁업무
 -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 및 관리에 관한 사업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각종 운송대리점업
 - 손해보험대리점업 및 생명보험모집에 관한 업무
 - 국제/국내항공화물대리점업
 - 노동자파견사업 등 총 34개 사업 영역

3. 면접조사 결과

가. 면접조사 항목

- (1) 일본인 수학여행단이 선호하는 관광지와 관광상품은?
- (2) 일본인 수학여행단이 생각하는 한국과 제주관광은?
- (3) 제주가 일본인 수학여행단 유치확대를 위해 보완하여야 할 점은?
- (4) 향후 해외수학여행 전망은?

나. 면접조사 결과

※ 다음의 조사결과는 각 기관의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 중 핵심되는 부분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

(1) 일본인 수학여행단이 선호하는 관광지과 관광상품은?

○ JSTB 관계자

- 현재 가장 선호되는 목적지는 호주임. 해외수학여행의 약 25%가 호주로 가는 상황임. 한국은 그 다음으로 15% 정도가 가는 것으로 분석됨.
- 선호하는 상품으로는 단체 수학여행과 더불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홈스테이 교육여행 상품도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음.

○ JTB 상품개발 관계자

- 호주와 한국에 대한 관심은 아주 높은 편임. 그런데 최근 중국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중국으로의 수학여행 문의가 부쩍 늘어나는 추세임.
- 역사 및 문화체험 수학여행 상품이 주종을 이루고, 자연경관 위주만으로는 상품을 구성하기가 힘든 편임.



(2) 일본 수학여행단이 생각하는 한국과 제주관광은?

○ JSTB 관계자

- 과거에는 사실 한국하면 편안한 이미지를 갖지는 못하였던 게 사실임. 그러한 이유는 역사·문화적인 요인에서 기인한 것일 것임.
- 하지만 2002월드컵을 거치면서 인지도가 급상승하였고, 특히 동대문이나 남대문 같은 대규모 쇼핑시설이 일본인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좋은 소재로 작용하고 있고, 역사와 문화는 수학여행단을 유혹하는 소재가 되고 있음.
- 제주의 경우는 아직은 인지도 면에서 약한 것이 사실임. 대장금 드라마로 다소 알려지기는 하였지만 솔직히 제주를 모르는 일본인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JTB 상품개발 관계자

- 일본인 수학여행단들은 아무래도 과거 한국과 일본과의 역사적 인연과 최근 라이벌 또는 동반자로서 흥미를 갖는 부분이 많음.
- 이러한 경향은 한류 열풍과도 무관하지 않아 부정적이기만 하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점차 바뀌가는 추세임.
- 제주는 지리적 근접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고, 관광상품 구매율도 저조한 편임. 그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항로가 부족하다는 점과 서울과 부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광비용이 크다는 점도 중요 요인으로 보여짐.

(3) 제주가 일본인 수학여행단 유치확대를 위해 보완하여야 할 점은?

○ JSTB 상품개발 관계자

- 제주관광의 가장 큰 약점은 서울이나 부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광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임. 거기에 대규모 수학여행단들이 묵을만한 저렴한 면서도 비교적 깨끗한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제주의 독특한 문화가 존재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실제로 일본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그다지 많지 않음. 문화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관광상품화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여짐.
- 다만 최근 일본 내 수학여행과 관련 세계지질공원(2009년 이토이가와지질공원 인증) 지역 내 수학여행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제주가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는다면 세계자연유산 브랜드와 더불어 수학여행지로서의 큰 매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음.

○ JTB 상품개발 관계자

- 홍보마케팅 측면에서도 여타 지역에 비해 활발한 편은 아니라고 여겨짐.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의 홍보활동은 대단히 다양하고 적극적임. 우리가 상품을 개발하기 전에 미리 준비된 상품을 가지고 우리를 찾는 경우도 많음. 또한 일본 내에서 표적시장별로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주의깊게 관찰한다면 제주도도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됨.

○ 시즈오카관광협회 관계자

- 일본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2009년 3월에 실시된 제주지역 수학여행 팸투어의 효과가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음. 홍보마케팅이 조금 부족한 측면도 있고, 무엇보다도 제주와의 직항노선

이 없는 상황에서 시즈오카 지역 내 여행사들이 수학여행 상품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음. 나리타 공항을 통해야 하는 상황으로 나리타까지의 이동시간, 교통비용 발생 등이 발생하여 타 지역에 비해 여행상품 가격이 높게 설정되어 지는 것이 가장 큰 약점임.

○ 나고야수학여행협회 관계자

- 제주가 별도의 일본 내 수학여행협회와 업무교류 내지는 홍보활동을 펼쳤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음. 나고야의 경우는 제주까지의 직항노선이 있는 관계로 수학여행 송출이 어려운 것은 아님. 다만 아직까지는 제주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많지 않고, 서울, 경주, 부산 등 기존 수학여행지들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음.
- 수학여행의 특성상 일본의 역사 혹은 문화와 연관성이 높은 요소가 제주에 있다면 향후 수학여행 목적지로서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역 내 여행사 및 관계자들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작업이 상당기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 하지만 일단 수학여행지로서 인식을 갖게 된다면 여행의 특성상 상당기간 지속적인 재방문율을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4) 향후 일본인 수학여행단의 관광전망은?

○ JSTB 관계자

- 해외문화체험을 통한 국제마인드의 양양이란 측면에서서 해외수학여행객 또한 꾸준히 증가할 것은 틀림없을 것임. 다만 대체적인 일본인들의 관광성향이 가깝고, 안전하고, 저렴한 관광지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중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로의 관광이 크게 증가할 것임.
- 이런 점에서 한국으로 관광하는 수학여행단 역시 증가율의 문제는 있겠지만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다만 한국의 경우 당분간은 서울지

역이 주된 목적지가 될 것이고, 제주로의 관광전망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음.

○ NTA 상품개발 관계자

- 해외수학여행의 증가세는 사회현상을 반영한 결과이므로 앞으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임. 특히 중국은 상당히 매력적인 수학여행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한국 역시 주된 대상지역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제주의 경우는 아직은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아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표 3-1> 일본현지 관계자와의 인터뷰 조사결과

	JSTB	JTB
수학여행단 선호하는 관광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와 한국 •홀스데이 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 한국, 중국 •역사문화체험
한국(제주)관광에 대한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힌류와 쇼핑으로 이미지 크게 개선 •제주는 인지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관광 이미지 개선 •제주는 인지도가 낮은 상황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제주의 보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가 최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유산 활용 •지속적 홍보 및 마케팅
향후 수학여행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에 대한 전망은 아직 불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의 성장잠재력은 충분하나 전망은 불투명

4. 실태조사 결과

- (재)일본수학여행협회가 2009년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해외수학여행 실태보고서에 의하면 14만여명으로 2007년의 17만 6천명, 2008년의 16만 6천명과 비교하여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2006년 이후 해외수학여행 추이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건수	1,191건	1,396건	1,325건	1,054건
인원	156,579명	175,455명	166,345명	141,775명

자료 : (재)일본수학여행협회, '해외수학여행실태조사결과', 2009. 6

- 학교별로는 2009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9건(476명), 중학교가 121건(10,874명), 고등학교가 924건(130,425명)으로 대부분 고등학교 위주로 해외수학여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 학교별 해외수학여행 실태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년	8건 (251명)	141건 (11,256명)	1,176건 (154,838명)
2009년	9건 (476명)	121건 (10,874명)	924건 (130,425명)

자료 : (재)일본수학여행협회, '해외수학여행실태조사결과', 2009. 6

- 일본 중학교에서 해외수학여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가별로는 호주가 24%로 가장 선호하는 대상지로 나타났고, 한국은 16%로 제2위 선호대상지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3-4> 중학교 해외수학여행 대상지

호주	한국	뉴질랜드	영국	미국	싱가포르	하와이
24%	16%	11%	9%	7%	6%	5%

자료 : (재)일본수학여행협회, '해외수학여행실태조사결과', 2009. 6

- 일본 고등학교에서 해외수학여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가별로는 한국이 17%로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호주가 12%,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10%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3-5> 고등학교 해외수학여행 대상지

한국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하와이	대만
17%	12%	10%	10%	8%	7%	6%

- 학교별로 월별 실시건수를 비교해 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10월과 11월에 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6> 학교별 월별 실시비율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10월	33%	35%
11월	30%	33%

자료 : (재)일본수학여행협회, '해외수학여행실태조사결과', 2009. 6

- 숙박일수에 대한 조사결과는 고등학교의 경우 3~6박의 건수가 전체의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4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7> 해외수학여행 숙박일수

구분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말레 이시아	기타 아시아	오세 아니아
2박	3	0	1	0	0	0
3박	62	16	17	16	0	6
4박	90	36	41	43	2	23
5박	30	22	45	38	6	38
6박	4	7	5	5	2	51
7박	3	2	1	0	2	27
8박	3	0	0	0	0	14
9박	1	0	0	0	0	5
10박	0	0	0	1	0	4
11박 이상	1	0	2	0	3	32
합계	197	83	112	103	15	200
비율	18.4	7.7	10.4	9.6	1.4	18.8

자료 : (재)일본수학여행협회, '해외수학여행실태조사결과', 2009. 6

주: 오세아니아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합산한 결과임.

- 해외수학여행 경비는 평균 5.8박에 189,171엔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립중학교는 261,722엔, 사립고등학교는 213,714엔으로 조금 더 많은 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방문지별 지출경비는 한국은 평균 104,744엔, 중국은 131,367엔, 싱가포르 1442,536엔, 오세아니아는 258,625엔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8> 학교별 해외수학여행경비

(단위 : 엔, 박)

구분	상한	하한	평균경비	평균박수
공립중학	280,000	45,000	127,384	4.7
사립중학	600,000	70,000	261,722	8.1
공립고교	350,000	50,000	120,903	4.2
사립고교	578,886	82,000	213,714	6.2

자료 : (재)일본수학여행협회, '해외수학여행실태조사결과', 2009. 6

<표 3-9> 방문국별 해외수학여행경비

(단위 : 엔, 박)

구분	상한	하한	평균	평균박수
한국	170,000	45,000	104,744	4.0
중국	240,000	78,000	131,367	4.1
싱가포르	250,000	94,000	142,536	4.4
말레이시아	360,000	83,500	140,300	4.4
기타 아시아	280,000	108,000	165,375	6.2
오세아니아	600,000	100,800	258,625	7.7

자료 : (재)일본수학여행협회, '해외수학여행실태조사결과', 2009. 6

주: 오세아니아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합산한 결과임.

5. 관광상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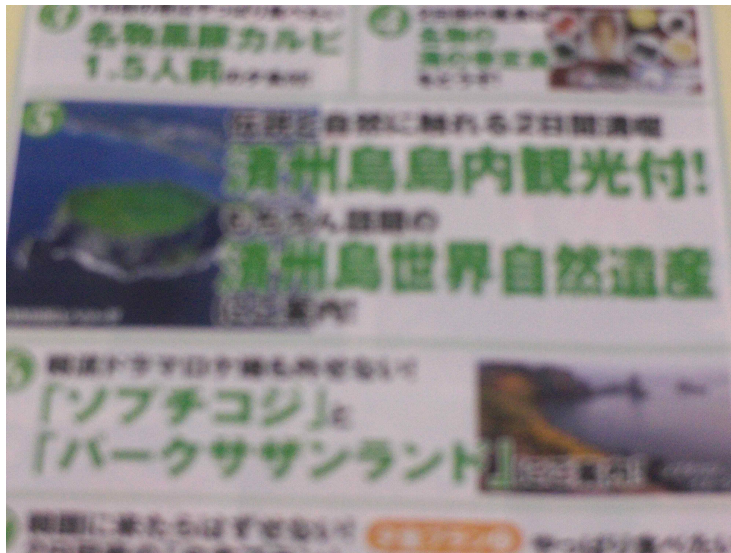
※ 다음의 분석결과는 일본 양대 여행사라고 할 수 있는 JTB와 KNT가 2010년 8월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주 관련 관광상품 내용을 정리한 것임.

- JTB가 판매하는 한국관광상품 종합브로슈어 '여름 한국'의 상품내용을 살펴보면 주된 목적지와 상품구성은 서울로 이루어져 있고, 제주와 부산을 비롯한 기타 주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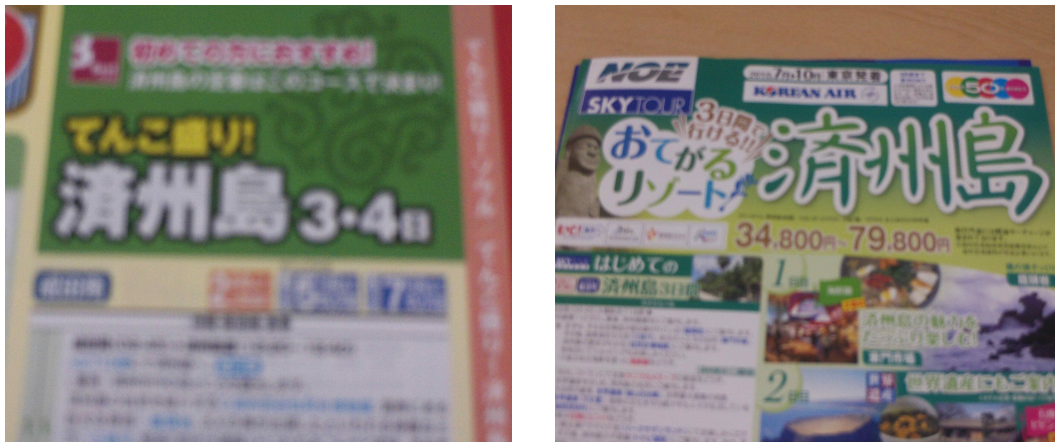


[그림 3-1] 한국종합관광상품 '여름 한국'

- 종합브로슈어의 상품내용 가운데 제주 관련 상품은 서울과 제주를 오가는 세계자연유산상품(제주는 1박 2일)과 3박 4일 제주 단독 관광상품 2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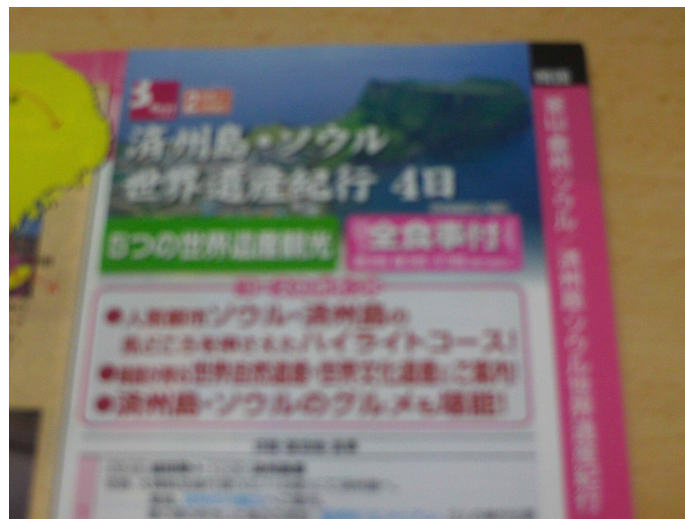
[그림 3-2] 일본 JTБ의 서울/제주관광상품



[그림 3-3] 일본 JTБ의 제주단독상품

- 관광비용의 경우 상품구성에 따라 최저 34,800엔부터 최고 136,900엔까지 책정되어 있고, 상품종류는 서울과의 공동상품이 2가지 유형, 부산과의 공동상품이 1가지 유형, 제주 단독 2가지 유형 등 총 5가지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KNT가 판매하는 한국관광상품 종합브로슈어의 상품내용을 살펴보면 주된 목적지와 상품구성은 서울로 이루어져 있고, 부산과 제주를 비롯한 기타 주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관광비용의 경우 상품구성에 따라 최저 27,900엔부터 최고 85,600엔까지 책정되어 있고, 상품종류는 ‘세계자연유산기행’, ‘맛있는 제주도’ 등 단독 상품 2가지와 서울 및 부산연계상품 2가지 등 총 4가지 유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3-4] 제주관광상품 ‘세계자연유산기행’

- KNT의 또다른 제주관광상품 ‘맛있는 제주도 3박4일’ 상품은 최저 42,500엔부터 최고 164,500엔까지 판매되고 있는 상품으로 올인, 대장금, 태왕사신기 촬영지는 투어와 동문시장 투어 및 용두암관광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된 관광상품임.
- 특이한 점은 이 관광상품에서는 제주옥돔정식을 ‘윤사마정식’이라 이름 붙이고 전복죽 역시 윤사마가 즐겨 먹는 제주의 고유음식이라고 설명하면서 비교적 상세하게 제주의 먹거리문화를 소개하고 있음.



[그림 3-5] KNT의 제주관광상품 '맛있는 제주도'

- 이상 일본의 양대 여행사라고 할 수 있는 JTB와 KNT의 한국 및 제주 관련 관광상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3-2>와 같음.

<표 3-10> JTB와 KNT의 제주 관련 관광상품 분석결과

	JTB	KNT
관광상품가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상품 3가지 • 제주 단독상품 2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상품 2가지 • 제주 단독상품 2가지
관광상품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는 자연유산체험과 문화체험이 주된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는 자연유산과 먹거리
관광상품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34,800~136,900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42,500~164,500엔)

IV. 수용태세 개선방안

1. 제도 부문

1) 일본인수학여행유치협의체 구성

가. 필요성

- 일본인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장조사 및 전략 수립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함에도 현재 제주에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 없는 실정임.

나. 구성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및 관련 업계 대표들로 협의체를 구성함을 원칙으로 함.
- 협의체의 역할
 - 일본인 수학여행단 시장조사
 - 팸투어의 실시 및 홍보/마케팅
 - 수학여행 관련 업체의 관리 및 지도
 - 수학여행 관련 상품의 개발 등

2) 수학여행 관련 업체인증제 도입

가. 필요성

- 대부분 낮은 단가로 인해 청결도, 음식의 질과 맛, 프로그램의 내용이 부

실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품질강화가 목적임.

나. 도입 방안

- 일본인 수학여행 시설 및 업체로서 적절한 품질 기준 및 매뉴얼의 마련
- 객실의 청결 및 안전도, 음식의 위생 및 맛, 프로그램의 충실도 등에 대한 평가 후 우수업체로 인증하는 방안을 강구함.
- 우수인증업체의 경우 제주도와 관광공사, 관광협회 홈페이지는 물론 수학여행 정보 인프라를 통해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 감면 등의 구체적 인센티브 방안을 동시에 강구함.

3) 안전제도 마련 및 교육 강화

가. 필요성

- 수학여행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행상품이기에 기획 및 운영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안전성의 확보가 될 수 있음.
- 또한 수학여행은 특성상 대규모의 인원이 동시에 이동하는 형태이다 보니 사고가 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성 확보 문제는 수학여행 유치를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임.

나. 개선 방안

- 수학여행 안전에 관한 학생들 대상 예방교육의 필수화
- 지역 내 경찰서와 소방서, 병원 등과의 협력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 예방 및 최소화
- 수학여행단에 대한 경찰의 에스코트 제도의 도입
 - 전남지역의 경우 지역 내 수학여행단을 에스코트하는 관광도우미로 경

찰들을 활용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어내기도 하였음.

- 수학여행단 탑승 버스의 최고속도 제한
 - 일본의 경우 수학여행단을 태운 차량은 시속 60km로 제한하고 있음.
- 수학여행단 탑승 차량에 대한 추월금지 제도 도입
 - 일부 나라에서는 어린이 및 학생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월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주는 이를 수학여행단까지 확대하는 방안 마련

2. 관광인프라 부문

1) e-tourism 정보인프라 구축

가. 필요성

- 제주의 낮은 인지도와 수학여행 관련 정보부재는 일본인 수학여행단 유치의 최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수학여행설명회 및 팸투어와 같은 제한적인 활동으로는 지속적인 정보제공이 미약할 수 있으므로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인프라 구축이 필요시 됨.

나. 구축 방안

- 제주관광공사 웹사이트에 수학여행 정보 메뉴를 신설하여 수학여행을 위한 코스 정보, 관광지 정보, 시설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함.
- 정보제공은 물론 온라인 수학여행마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행사들의 상품정보, 업체들의 할인정보, 거래지원 정보 등을 전달하는 기능도 수행하게 함.

2) 수학여행지도사 양성

가. 필요성

- 교사들은 수학여행 기획경험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미흡하여 보다 효과적인 수학여행 프로그램 마련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
- 조사에 의하면 많은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수학여행을 기획하고 도와주는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나. 양성 방안

- 학교별로 특성화된 수학여행,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함.
- 수학여행지도사는 크게 내국인 전담인력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전담인력으로 구분하여 양성하고, 해당 학교가 제주를 찾는 경우 전담하여 수학여행을 지도함으로써 수학여행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게 함.

3) 수학여행 전용 숙박시설의 확충

가. 필요성

- 기존의 관광호텔은 수학여행단에게는 비용부담이 크고, 여관은 시설의 청결도 및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함.

나. 확충 방안

- 2급과 3급 호텔을 중심으로 일본인 수학여행 전담 숙박시설로 유도함으로써 수학여행단의 경비와 만족도를 동시에 제고하는 방법으로 활용함.

- 또한 수학여행 전담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비용의 지원과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업체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함.

3. 상품개발 부문

1) 수학여행 코스 개발

가. 필요성

- 제주는 일본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자연, 역사, 문화적 요소가 다양함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 따라서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전적지, 지질공원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수학여행 상품으로 개발하고 코스화하는 방안이 시급함.

나. 개발 방안

- 세계자연유산 탐방 수학여행
- 제주지질공원 탐방 수학여행
- 일본군 전적지 역사탐방 수학여행
- 제주올레 트래킹 수학여행 등
- 제주 홈스테이 교육여행 상품
 - 일본의 경우 수학여행과 더불어 가장 인기있는 교육여행은 홈스테이 체험을 통한 문화와 역사 및 언어배우기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일본은 통상적인 수학여행 이외에 홈스테이, 어학연수, 유학 등을 통칭하여 교육여행이라 부름.

2) 수학여행 상품공모전 개최

가. 필요성

- 제주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차별화할 만한 특별한 수학여행 상품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상품공모전을 개최함.

나. 개발 방안

- 지역 내 여행사는 물론 전국의 여행사를 대상으로 제주 수학여행 상품공모전을 실시함.
- 단체형, 한 학년형, 한 반형 등 다양한 형태의 수학여행상품을 공모하고, 우수상품에 대해서는 수학여행 마트나, 매뉴얼, 정보인프라를 통해 홍보의 기회를 부여함.
- 상품공모전과 더불어 우수 수학여행 사례집 등을 발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3) 제주수학여행 실행매뉴얼 보급

가. 필요성

- 제주의 인지도가 낮고 정보가 부족한 관계로 수학여행 기획단계에서부터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상품정보의 부재, 진행방법 등에 대한 노하우 부족 등이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나. 보급 방안

- 수학여행 기획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 제공 및 이용 인프라의 안내, 수학여행시 안전사고를 대비한 대처방안 등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

- 실행매뉴얼 내에는 '제주수학여행의 올바른 기능 및 효과', '우수 제주수학여행 사례', '제주수학여행 진행방법', '제주수학여행시 안전사고 대응방법', '제주수학여행 시설 이용방법' 등의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게 함.

4. 홍보·마케팅 부문

1) 인지도 강화 및 홍보의 조기실행

가. 필요성

- 현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결과 제주가 일본인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제주의 낮은 인지도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일본인 관광객들은 대부분이 출발 전에 스케줄을 확정하는 경향이 있어 여행지로의 출발 전에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홍보에 가장 중요함.

나. 개선 방안

- 일본인 관광객은 전통적으로 미디어와 여행잡지, 여행사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방안 마련이 중요하고, 또한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홍보매체 수단을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 제주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홍보 전략으로는 현지 관광설명회, 관광박람회/상품전 등의 참가, 기타 국제회의참석 등이 주요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현지 유명 연예인과 인사를 활용한 이미지 광고가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이것은 특히 유명인들의 미디어홍보에 많은 관심과 신뢰감을 갖는 일본인들의 특성상 다소 비용은 많이 들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2) 제주와 일본 학교와의 자매결연 강화

가. 필요성

- 일본의 경우 교류협력 내지는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에서의 방문을 예의처럼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

나. 강화 방안

- 제주지역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일본의 학교들간의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상호 교환방문 형태의 접근은 제주의 인지도를 높이고 수학여행지로서의 상품가치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될 수 있음.

3) 구전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가. 필요성

- 다양하고 넘쳐나는 정보에 둘러싸임으로써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매스커뮤니케이션 일변도에서 신뢰도가 높은 구전(口傳) 커뮤니케이션(입소문 : word of mouth)으로 중심이동이 일어나고 있음.
- 구전 커뮤니케이션 정보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된다는 특성 때문에 상품 소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조사하는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서도 친구/친지/동료 등에 의한 구전 커뮤니케이션이 관광목적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 조사되었음.

나. 활성화 방안

- 일본의 교사 및 학생대표, 수학여행 관련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주관광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구전효과를 창출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하고, 일본의 연예·스포츠 스타, 한류스타를 제주관광홍보대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 제주수학여행을 경험한 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집, 사례집 등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홍보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함.

4) 일본 현지여행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마케팅 구축

가. 필요성

- 일본인들은 자국의 여행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신뢰도가 높아 일본 현지 여행사와의 협력마케팅은 가장 빠른 마케팅수단이 될 수 있음.

나. 구축 방안

- 일본 5대 여행사인 JTB, KNT, 니혼료코, 잘팍, 한큐교통 등 대형여행사에 제주홍보 협조를 위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공동광고, 카탈로그 제작 지원, 공동 판촉활동, 전시회 공동 참가, 팸투어 지원, 공동설명회 개최 등의 협력마케팅을 모색해야함.
- 또한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처럼 제주가 먼저 필요한 수학여행 관련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홍보물과 브로슈어를 현지 여행사에게 제공하여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함.

5) 한국 내 관련 기관과의 공동마케팅 강화

가. 필요성

- 정부 차원에서도 일본인 수학여행단 유치를 의미있는 틈새시장으로 보고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관광업계와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해외마케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점과 해외마케팅에 대한 노하우 및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해야 함.

나. 강화 방안

- 한국관광공사의 각 년도 홍보일정을 조기에 파악하여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현지 관광설명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모색하여 홍보의 효율성과 비용절감 효과를 도모함.

<표 4-1> 일본인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 방안

구분	정책 제언
제도 부문	일본인수학여행단유치협의체 구성 수학여행 관련 업체인증제 도입 안전 관련 제도 정비 및 교육강화
인프라 부문	e-tourism 정보인프라 구축 수학여행지도사 양성 수학여행 전담 숙박시설 확충
상품개발 부문	제주수학여행 코스 개발 수학여행 상품공모전 개최 제주수학여행 실행메뉴얼 보급
홍보·마케팅 부문	인지도 강화 및 홍보의 조기실행 제주와 일본 학교와의 자매결연 강화 구전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일본 현지 여행사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마케팅 구축 한국 내 관련 기관과의 공동마케팅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관광진흥5개년계획, 2010

제주특별자치도, 2010 관광행정현황, 2010

한국관광공사, 2007 수학여행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2007

(재) 일본수학여행협회, 2009년 해외수학여행 실태조사, 2010

- 지역 언론 관련기사

일본 수학여행단 유치하자! (2006.11.04)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관광협회는 3일 수학여행상품 개발을 위한 일본 교직원 초청 팸투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5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팸투어는 일본 교직원들을 초청해 수학여행코스로 활용할 수 있는 평화박물관, 일본군 전적지, 돌문화공원, 삼다수공장, 행원풍력단지,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국제평화센터 등 도내 주요 관광문화자원과 시설을 답사한다. 이들은 또 수학여행 교류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와 도관광협회에서 주관하는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일에는 도내 학생들의 활동과 교육운영 등의 현황파악을 위해 제주관광산업고를 방문할 계획이다.

관광협회 등은 이번 팸투어를 계기로 틈새시장으로 분류되는 일본 수학여행시장 공략을 위한 관광마케팅 활동을 본격 추진하고 일본 청소년 유치를 위한 관광수용 태세를 갖춰나갈 방침이다. 도와 도관광협회는 앞으로 일본 현지 수학여행 설명회 개최, 수학여행 홍보물 제작, 언론매체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미래 잠재고객인 일본 청소년들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제주일보-

일본 고교 수학여행단 제주 찾는다 (2008.09.29)

일본 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이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는다. 나가노현 마츠시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교사 등 203명은 첫날 나고야에서 전세기편으로 내도, 이튿날부터 제주평화박물관을 비롯해 송악산 진지동굴, 일본군 격납고, 제주항일기념관, 제주자연사박물관 등 일본과 관련이 있는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답사하게 된다. 이들은 또 서귀포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교류 활동을 갖기도 한다. 제주도는 이번 수학여행단의 제주 방문이 제주의 아픈 역사와 문화적 요소가 관광과 결부돼 경쟁력 있는 새로운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틈새시장으로 물꼬를 트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29일 “일본의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단을 구성해 집단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수학여행 목적지로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기관, 관광업계와 공동으로 수용태세를 조성하는 한편 현지 홍보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일보-

일본 고교 제주수학여행 내년 본격화 (2008.12.29)

일본 고교생들이 제주를 찾아 한일 양국의 평화공존의 의미를 되새기는 제주 평화 수학여행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일본 나가노현 고교 교육문화회는 내년 2월 21일 '제주도 수학여행을 통한 평화국 제교육'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9월 일본 마쓰시로 고교 수학여행단의 제주 방문 이후 제주 수학여행이 일본 고교생들의 평화교육에 기여하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돼 개최되는 것이다. 일본 나가노현의 91개 고교는 관례적으로 교토와 나라 등으로 가던 수학여행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오키나와 등으로 옮겨 평화교육을 실시했으나, 일본이 받은 전쟁의 피해만을 일방적으로 가르칠 뿐 가해자로서의 잘못에 대해 모른척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때 지난 9월 마쓰시로 고교가 해외 수학여행을 불허하고 있는 나가노현 교육위와 일부 우익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주를 찾아 전쟁의 가해자로서의 잘못을 반성하는 교육의 기회로 삼았다. -제주일보-

日 수학여행단 제주 방문 이어지려나 (2009.01.05)

올해부터 '평화의 섬' 제주를 찾는 일본의 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이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도관광협회는 2월 21일 일본 나가노(長野)현에서 나가노현고등학교교육문화회의 평화.국제교육부회 주관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통한 평화.국제교육'이란 주제의 세미나가 열린다고 5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지난해 9월 나가노현 마츠시로(松代)고등학교 학생 204명이 제주를 방문한 이후 열리는 것으로 향후 나가노현 지역 91개 고교의 수학여행지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단체는 세미나에 앞서 같은 달 7~10일 4일간 교사와 언론사 여행 담당 기자 등 12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을 제주에 파견해 제주도관광협회와 수학여행 코스 개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나가노현고등학교교육문화회의는 이미 지난해 말 실무팀 3명을 파견해 삼양동 선사유적지, 4.3유적지,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향몽유적지인 향파두리, 평화박물관, 알뜨르비행장, 서북전시관, 환해장성, 별방진 등의 코스를 사전 답사하기도 했다. 당시 제주를 방문했던 실무팀의 일원인 쓰루분카대학의 와타나베 교수는 "한국 내 다른 지역보다 제주도의 평화 관련 자료가 몇 배나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일본 수학여행단의 체험 목적지로 매우 적합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마츠시로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현지에서의 설문조사 결과 제주여행이 "좋았다" 또는 "너무 좋았다"고 답한 학생이 69%에 이른 것으로 전해져 일본 수학여행단의 제주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일보-

日 수학여행단 제주유치 성과 (2008.12.29)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의 일본 나가노현 지역 수학여행단 제주유치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관광협회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일본 나가노현 지역 수학여행단을 제주로 유치하기 위해 일본 현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9월 30일 나가노현 고등학교 재학생 2백4명이 제주를 방문했고 나가노현고등학교 교육문화회의 평화·국제교육부회는 내년 2월 21일 일본에서 '제주도 수학여행을 통한 평화·국제 교육'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기로 했다. 이에앞서 국제교육부회 실무단은 '평화·국제교육'세미나에서 보고할 수학여행 코스 개발을 위해 27일 제주를 방문, 29일까지 목관아지와 삼양선사유적지, 4·3유적지, 거문오름, 향파두리, 평화박물관, 알뜨르비행장, 서북전시관, 환해장성, 별방진 등 제주의 역사와 문화 유적지 등을 답사하고 있다. 도관광협회는 이번 실무단의 제주방문을 맞아 환영행사, 관광교류 간담회, 도내 교육여행관련 현장 답사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세미나를 통해 제주도가 수학여행지로 부각되면 나가노현 91개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일본지역의 많은 학교에서 수학여행 목적지로 제주로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8년 9월 30일 나가노현 고등학교 수학여행단 204명 대상 설문조사결과 제주여행에 대해 69%가 '좋았다', '너무 좋았다'라고 답했고 특히 역사와 평화가 연계된 관광지에 대한 체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라일보-

日 수학여행단 내도 (2008.09.30)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본 나가노(長野)현의 마츠시로(松代) 고교 수학여행단 2백3명이 30일 오후 나고야에서 전세기편으로 내도, 10월 3일까지 송악산 진지동굴과 평화박물관, 항일기념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등 제주의 역사·문화관광지를 답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일 오전에는 서귀포고등학교 학생들과 만나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뜻 깊은 자리도 마련한다. 일본 고교생 수학여행단 내도는 처음으로 제주자치도는 이번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틈새시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마츠시로 고교는 6백50명이 재학중이며 해외수학여행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자치도 강영돈 해외마케팅담당은 "일본 제주관광홍보사무소와 여행업계가 공동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전세기 인센티브도 유치에 한 몫했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일본 수학여행단 유치 "시동" (2005.10,25)

일본 해외 수학여행단 제주 유치를 위한 첫 움직임이 시작됐다. 한일해협연안광역관광협의회의 올해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수학여행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일본 4개현 교장단이 24일과 25일 이틀간 제주를 체험했다. 이번 방문은 한일해협권의 관광교류 확대와 협력 증진을 물론 한·일 수학여행단의 발길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향후 성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제주 팜투어에는 후쿠오카와 사가, 나가사키, 야마구치현 8개 고교 교장단이 참가, 제주외국어고 등을 방문해 학교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주요 관광지를 돌며 수학여행 코스 개발 가능성을 가능하게 된다. 한일해협연안관광교류회의는 이들 고교 교장단 초청 팜투어에 이어 오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학여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 양국 수학여행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사전답사를 실시해 상품 구성에 나서는 것은 물론 내년부터는 팜투어 대상을 교사단으로 확대, 교육적인 효과까지 접목한다는 복안이다. -제민일보-

일본 수학여행 새 관광시장 개척 (2006.07.03)

제주도관광협회가 업계와 손잡고 일본 수학여행이라는 새로운 관광시장 개척에 나섰다. 관광협회에 따르면 일본 최대여행사인 JTB는 최근 제주에서 촬영중인 '태왕사신기' 등 한류열풍을 타고, 제주관광 이미지가 일본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수학여행단 송출에 따른 상품개발을 위해 답사판을 파견, 구체적인 여행 상품개발에 돌입했다. 관광협회는 이번 JTB 답사단에 '2006 제주방문의 해'사업추진을 설명하는 등 제주가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관광지임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수학여행 코스로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일본군 전적지 등을 안내, 상품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일본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에는 관광협회뿐 아니라 도내 인바운드 여행업체인 한진관광 제주지점이 적극 돕고 있다. 관광협회와 한진관광 제주지점은 '일본 수학여행'이라는 새로운 관광 수요시장을 개척, 제주관광의 제2도약을 이끈다는 복안이다. -제민일보-

한국관광공사 일본수학여행단 유치 제주 제외 (2008.03.26)

한국관광공사가 일본수학여행단 국내 유치 마케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제주도도 일본 수학여행단 유치 활동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2008 한일교류의 해를 맞아 일본수학여행단 국내 유치를 위해 44개교 60여명으로 구성된 '일본 전국 중고교 교육여행담당 교직원 방한시찰단'을 초청했으며, 방한시찰단은 27일부터 30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국내 관광지를 시찰한다. 이번 시찰여행은 '서울권-전통문화체험코스', '경기권-평화·안보코스', '부여와 공주권-백제문화코스' 등 3개 코스로 진행된다. 하지만 제주는 포함되지 않아 일본 수학여행단 유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관광업계 등은 우리나라에서 제주가 대표적 관광지이고, 관광이 제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제주지역도 시찰여행 코스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제주지역은 수학여행단 유치·운영 경험과 기반시설이 풍부하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학생들의 교육목적 여행지로 적합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 한일관광교류의 해를 맞아 도는 올해 '한라산 트래킹 대회', '한일 친선 사이클 이벤트', '세계자연유산과 제주해안 워킹 이벤트'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본 수학여행단 유치 관련 계획은 없다.

반면 서울시는 일본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일본 규슈지역의 교직원과 여행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고, 8월에도 아키타현 등 30여개 중고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제민일보-

제주관광 평화와 자연유산으로 일본 수학여행 시장 공략 (2008.12.28)

도관광협회는 일본관광객 신규창출과 상품 다양화 등을 위해 수학여행단 유치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일본 나가노현 마츠시로고등학교 수학여행단 203명이 지난 9월 30일 제주를 방문, 송악산 진지동굴·평화박물관·항일기념관 등을 답사했다.

일본 수학여행단이 경유가 아닌 순수목적지로는 제주를 방문한 것을 처음이다. 특히 이들 수학여행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좋았다' 응답률은 22%이며, '좋았다'가 47%로 분석되는 등 69%의 학생들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 수학여행 일정에 대해 14%의 학생들은 '매우 풍부해 좋았다'고 응답했고, '풍부했다'는 42%로 답변하는 등 66%가 제주관광의 내용면에서도 높게 평가했다. -제민일보-

일본 수학여행단은 일석이조 (2008.12.29)

달러와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해외로 빠져나가던 내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로 발길을 돌리는 등 제주관광이 반짝 호황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제주는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와 밀리면서 외국인 관광객 특히 일본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은 늘고 있는 반면 제주를 찾는 일본인 관광객은 오히려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제주관광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일본 수학여행단 유치에 위한 공격적 마케팅에 나선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사이에 과거사를 둘러싼 국민적 감정이 채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관광협회가 일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학여행 주제를 '평화와 자연'으로 삼은 것도 눈길을 끈다. 평화박물관과 송악산 진지동굴, 알뜨르 비행장, 항일기념관 등 도내 일제 유적지는 앞서 제주를 찾은 일본 수학여행단으로부터 이미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지난 10월 1일 한경면 소재 평화박물관을 방문한 나가노현 마츠시로고등학교 학생 204명은 과거를 되돌아보며 양국간 평화와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당시 도관광협회가 실시한 전체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69%가 '매우 좋았다'나 '좋았다'고 응답했었다.

일본 수학여행단은 이처럼 제주에 관광소득만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양국간 우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에는 이들 역사교육의 현장뿐만 아니라 세계자연유산 등 전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관광자원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제주도와 도관광협회, 관련 업계 등은 오는 관광객만 받으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직접 일본에 뛰어들어 설명회를 갖는 등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제민일보 사설-

3~5일 일본 교직원 초청 팸투어 진행(2006.11.03)

수학여행상품개발을 위한 일본 교직원 초청 팸투어가 3일부터 5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관광협회는 일본 교직원들을 초청, 학생들의 수학여행코스로 활용할 수 있는 평화박물관, 일본군전적지, 돌문화공원, 삼다수공장, 행원풍력단지,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국제평화센터 등 도내 주요 관광문화자원과 시설을 둘러보게 할 계획이다.

3일 제주에 도착하는 일본 교직원들은 주요관광지를 둘러보고 수학여행교류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와 관광협회에서 주관하는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4일에는 도내 학생들의 활동과 교육운영 등의 현황파악을 위해 제주관광산업고를 방문한 후 삼다수공장, 행원풍력발전단지 등을 답사한다. 팸투어 마지막날인 5일에는 한라산 등 도내 주요관광지를 둘러보고 일본으로 돌아간다. 관광협회는 이번 팸투어가 틈새시장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일본 수학여행시장 공략을 위한 관광마케팅 추진 뿐만 아니라 일본 청소년 유치를 위한 관광수용태세를 갖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와 관광협회는 앞으로도 일본지역 잠재고객 확보를 위해 현지 수학여행설명회, 수학여행 홍보물 제작, 언론매체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의 소리-

日 고교수학여행단 첫 제주나들이(2008.09.29)

마츠시로 고교생 203명, 3박4일 일정 제주여행...외국인관광객 유치 틈새시장 '물꼬' 일본 고등학교 대규모 수학여행단이 처음으로 제주를 찾아 외국인관광객 유치 '틈새시장'을 뚫는 물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일본 나가노(長野)현의 마츠시로(松代) 고교 수학여행단 203명이 30일 오후 나고야에서 전세기편으로 제주를 방문, 10월3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제주관광에 나선다.

한·일 양국간 교류나 행사방문 목적이 아닌 순수한 수학여행 차원에서 일본 고교생들이 대규모로 제주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일본 수학여행단은 송악산 진지동굴과 평화박물관, 항일기념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등 제주의 역사·문화관광지를 답사할 예정이다. 특히 2일 오전에는 서귀포고등학교 학생들과 만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뜻 깊은 자리도 마련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마츠시로 고교 수학여행단의 제주방문은 외국인관광객 유치의 틈새시장으로서 일본 수학여행단 유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의 소리-

일본 수학여행단 유치, 제주관광 '블루오션'(2008.12.28)

제주도와 관광협회가 제주관광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일본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타깃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일본 나가노현 지역 수학여행단을 제주로 유치하기 위하여 현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유치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러한 유치활동 결과, 지난 9월30일 나가노현 고등학교 수학여행단 204명을 유치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내년 2월21일에는 나가노현 고등학교 교육문화회의 평화·국제교육부회 주관으로 일본 현지에서 '제주도 수학여행을 통한 평화·국제 교육'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평화·국제 교육 세미나에 보고할 수학여행 코스 개발을 위해 일본 나가노현에서는 내년 2월 7~10일 교사와 기자 등 12명이 제주를 찾을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서는 지난 27일 실무단 3명이 먼저 제주를 방문하기도 했다.

제주도와 관광협회는 이번 실무단의 제주방문 기간동안 환영행사, 관광교류 간담회, 도내 교육여행관련 현장 답사 업무를 적극 지원, 일본 수학여행단 유치활성화의 토대를 닦았다. 한편, 지난 9월30일 제주를 찾았던 나가노현 고등학교 수학여행단(2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제주여행에 대해 응답자의 69%가 "좋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역사와 평화가 연계된 관광지에 대한 체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돼 제주도가 일본 수학여행단의 체험 목적지로 매우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27일 제주를 찾은 사전 시찰단은 오는 29일까지 제주목 관아지, 삼양선사유적지, 4.3유적지, 거문오름, 향파두리, 평화박물관, 알뜨르비행장, 서북전시관, 환해장성, 별방진 등 제주의 역사와 문화 유적지 등을 답사할 예정이다.

-제주의 소리-

일본 마츠시로 고교, 2년째 제주 수학여행(2009.10.01)

지난해 일본 수학여행단으로는 처음으로 제주를 찾았던 나가노현 마츠시로 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이 올해에도 제주를 찾는다. 제주도에 따르면 일본 나가노현 마츠시로 고등학교 학생 193명과 교사 11명 등 총 204명으로 구성된 수학여행단이 오는 5일 일본 토야마공항에서 전세기편으로 제주에 도착, 8일까지 3박4일간 제주여행에 나선다. 여행단은 평화박물관, 송악산 일본군 진지동굴,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 등을 답사한다. 한편 마츠시로 고등학교는 지난 1906년 개교해 현재 65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지난해 일본수학여행단으로는 처음 제주를 방문했다.

-제주의 소리-

■ 연구진

연구책임	신동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	--------------

기본연구 2010-4

일본인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방안

발행인 || 양 영 오

발행일 || 2010년 8월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690-029 제주시 청사로1길 18-4번지

전화: (064) 726-0500 팩스: (064) 751-2168

홈페이지: www.jdi.re.kr

인쇄처 || 삼화상사인쇄소 (☎ 064-753-2018)

ISBN 978-89-6010-151-7 933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出處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 轉載나 複製는 금합니다.